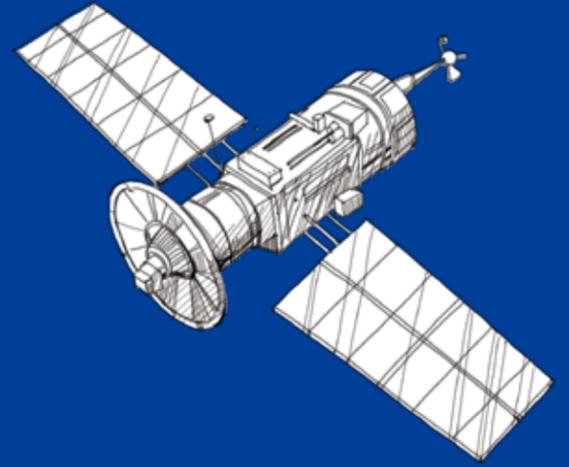


나의 경기도

2025

04



기후위기의 시대

우리 힘으로 밝히는 지구



경기도 소식지는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 산림관리협의회) 인증을 획득한 인쇄 파트너사에서 FSC® 인증 용지를 사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기후위기의 시대 우리 힘으로 밝히는 지구



최근 인류의 가장 큰 화두는 단연 ‘환경’이다.
경기도 역시 탄소중립을 위해 아파트와 마을에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RE100 사업을 시행하며 적극적으로 기후행동에 나서고 있다.

지구의 날을 맞이하는 4월,
갈수록 심해지는 이상기후가 환경에 대한 우려를 높이는 요즈음,
탄소중립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좌측부터) 스마트에너지 아파트, 에너지 자립마을



평택 호정마을

Contents

2025. 04. VOL.190



문자 음성 변환 코드, 보이스아이

기회 경기

도민을 위한 정책 가이드

06

지금, 더, 특별한 경기

톡톡 튀는 취향저격
경기도에 이런 박물관이?
이색 박물관 탐방

14

기회의 경기

점점 더워지는 계절, 전기세 폭탄이 걱정된다면?
주택태양광 설치로 관리비 아껴보세요!

20

이로운 경기

우리 땅, 우리 바다를 가꾸고 일구는 사람들,
경기도가 응원합니다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22

기회소득 고마워!

개개인의 기후행동이 RE100의 실현으로!
이은정 탄소중립지원센터
도민추진단 서부권역대표



06

변화 경기

특별한 소통과 참여

24

쉼이 있는 시(詩)간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

26

인터뷰

나의 공간과 지구의 환경을 위한 '정리의 선순환'
공간크리에이터 이지영

30

경기, 광복 80주년

삼균주의(三均主義)를 통해
독립운동을 펼쳐나간 조소앙 선생

32

슬기로운 경기생활

Q&A로 알아보는 간병 SOS 프로젝트

34

친환경 경기생활

맑은 공기를 부탁해! 기후변화로부터 나무를 지키는 일

36

기회기자단

기회기자단이 본 별별 경기

일상 경기

더 나은 삶을 위한 생활, 문화

38

천권으로

원미동 사람들의 문화 아지트
우리 동네 독립서점 '원미동 용서점'

42

특별한 하루

과거에는 책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동우·신경선 가족의 책 만들기 체험

44

바지락이 궁금해!

봄에 누리는 특별한 즐거움
갯벌의 작은 보석, 바지락

48

웰니스 라이프

봄기운과 함께 찾아온 불청객
안질환 타파하는 '눈 건강 가이드'

50

소방관 허창범

산불 안전지대는 어디에도 없다!
봄철 산불 안전 수칙

52

의회 인사이드

56

이달의 노력

58

경기도는 지금

60

독자 이벤트

62

일잡꿈잡

GYEONGGI MONTHLY MAGAZINE

발행처 경기도

발행인 경기도지사 김동연

편집인 홍보기획관

제작부서 도민소통담당관

발행일 2025년 4월 1일



<나의경기도>는 경기도가 무료로 발간하는 도정 소식지입니다.
본지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 표시·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나의경기도 오디오북



나의경기도 웹진



경기도 누리집



경기도 유튜브



38

26





톡톡 튀는 취향저격 경기도에 이런 박물관이?! 이색 박물관 탐방

역사, 과학, 미술 등 꼭 거창한 것만이 박물관의 주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일상 속 소소한 것들 역시 전시의 주제가 될 수 있다. 늘 함께하고 있기에,
더욱 의미 있는 것들을 주인공 삼은 경기 이색박물관들을 만나보자.

커피와 자연 그리고 클래식

2006년도에 개관한 한국 최초의 커피박물관인 경기도 남양주의 왈츠와닥터만 커피박물관. 이곳은 단순히 커피에 관련된 유물만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커피와 관련된 다양한 문화, 역사,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커피 기록에 대한 재정립도 진행했다. 커피의 역사와 일생, 문화가 전시된 1층의 4개 전시관과 우리나라 최초의 커피 재배 온실과 체험공간으로 이루어진 2층의 1개 전시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고종황제가 사용했던 향실 은제 커피스푼의 실물 전시를 만나볼 수 있다.

왈츠와닥터만 커피박물관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북한강로 856-37, 031-576-0020





디지털 세상에 감성 한 스펀

20세기 말 인류의 대표 문화유산 중 하나인 휴대전화. 이 휴대전화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여주시립 폰박물관은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휴대전화 박물관으로, 우리나라 ICT산업을 이끌어 온 수출 휴대전화를 비롯하여 명품 휴대전화, 희귀 휴대전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수상작 등 22가지 흥미 있는 테마가 가득하다. 역사관, 주제관, 가족관 그리고 에필로그 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역사관과 주제관은 누구나 관람 가능하다. 2층에 있는 가족관은 20명 이상의 단체 관람객만 사이트에서 예약한 후 관람할 수 있다.

여주시립 폰박물관 경기도 여주시 강변유원지길 105, 031-887-3548



풍류 속에서 배우고 즐기는 우리 술 문화

200년 된 열두 그루의 산사나무 아래 전통술이 익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인 산사원은 전통주의 가치를 알리고자 설립된 박물관으로, 술과 관련된 역사와 문화를 알아보고 여러 가지 술을 시음할 수 있는 곳이다. 박물관 1층에 위치한 음식 전시실에서는 술지게미 과자, 무박이, 산사 정과 등 산사원에서 개발한 다양한 음식들을 맛볼 수 있고, 전통술과 관련된 유물들을 전시한 2층에서는 단체 관람객을 위한 가양주 빚기 체험도 진행된다. 박물관 옆에는 산사 정원이 있어 한옥의 아름다움과 다양한 술향아리를 살펴볼 수도 있다.

전통술 박물관 산사원 경기도 포천시 화현면 화동로432번길 25, 031-531-9300



천 여 가 지 의 미 소 를 만 나 다

다양하고 풍부한 표정을 가진 사람의 얼굴을 작품으로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그 이름도 특별한 얼굴박물관이다. 연극 연출가 김정옥이 지난 50여 년간 수집해 온 석인, 목각인형, 도자기 등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의 도자·유리 인형 그리고 사람의 얼굴을 본뜬 와당과 가면 등 총 1,000여 점이 넘는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마치 거대한 소품창고를 보는 듯한데, 전시품들이 진열장 안에 갇혀있지 않아 더욱 친근하게 느껴진다. 많은 얼굴을 보며 어떤 표정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얼굴로 남고 싶은지 생각해봐도 좋겠다.

얼굴박물관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분원길 3-6, 031-765-3522





기 '똥' 차게 독특하고 유쾌한 화장실 문화 탐방

변기 모양의 외관부터 범상치 않은 이곳의 정식 명칭은 '화장실문화전시관'이지만, 애칭은 '똥 박물관'이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해우재'는 전 세계 유일무이한 화장실 테마공원이다. 모두에게 친근하면서도 공식적으로 다루기가 꺼려로운 소재인 똥. 이것을 박물관 테마로 승화시킨 주인공은 고(故) 심재덕 세계화장실협회 초대 회장(전 수원시장)이다. 이 독특한 공간 덕분에 관람객들은 즐겁게 웃으며 화장실 문화를 향유하고 새로운 배움의 기회도 얻을 수 있게 됐다.

해우재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458번길 9, 031-271-9777





점점 더워지는 계절, 전기세 폭탄이 걱정된다면?

주택태양광 설치로 관리비 아껴보세요!

경기도는 2023년 경기 RE100 비전을 선포하고 공공기관,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주택과 마을 단위로도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중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사업'은 다가구를 포함한 단독주택의 지붕이나 옥상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 2,534가구, 2024년 2,647가구를 대상으로 주택태양광(3kW)

설치를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6,000여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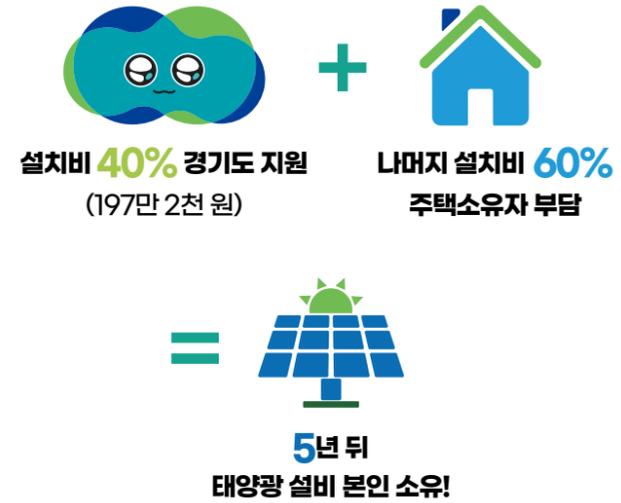
점점 더워지는 계절, 전기세 폭탄이 걱정된다면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태양광 설치에 에너지원
다양화,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라는
다양한 장점을 동반한다.

주택태양광 '분할납' 사업



* 주택 소유자는 5년(60개월) 간 매월 약 4만 9천 원 부담

올해 개편된 지원방식(일시납, 분할납)

올해 지원 방식은 시군 연계 사업, 경기도 단독 지원사업 두 가지로 나뉘며, 경기도 단독 지원사업은 '일시납' 또는 '분할납' 중 선택할 수 있다. '분할납' 지원은 올해 새로 도입된 방식이다. 설치 비용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도민들을 위해 5년에 걸쳐 지불할 수 있도록 했다. 자부담 비율이 10%p 더 높지만, 별도의 이자 없이 5년 분할 납부를 고려하면 실제 도민 자부담은 50% 수준이다. 이렇게 경기도가 주택태양광 지원방식을 대폭 개편한 이유는 전기료 절감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7~8월 전기요금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제로 가구당 월평균 전기요금이 약 7만 원씩 절감돼 약 3년이면 주택태양광 설치비용을 회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 사용량이 많은 가구는 더 큰 폭으로 요금이 절감돼 더 빨리 비용이 회수될 수 있다.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시스템(www.ggr100home.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더욱 많은 가구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태양광 설치에 에너지원 다양화,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라는 다양한 장점을 동반한다. 실제로 지난해 도내 단독주택 2,647가구에 주택태양광 설치 지원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용량 8MW를 확보하고 연간 온실가스를 4,700톤 절감하는 효과를 냈다. 올해는 더 많은 가구 지원을 통해 18MW의 발전용량을 확보하고 연간 온실가스 10,600톤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주택태양광 설치를 원하는 가구는 많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올해는 도민의 자부담 비율을 30%에서 50%로 높이는 대신, 더 많은 가구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개선했다. 이로써 지난해 2,600여 가구를 지원했던 것을 올해는 6,000여 가구로 대폭 확대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FAQ.

팩트체크!
태양광에 대한 오해를 하나씩 알아보아요.



Q1.
태양광 패널의 빛 반사가 눈부심을 유발하지 않나요?

태양광 모듈의 빛 반사율(5.1%)은 건축 외장재 벽돌 및 유리보다 낮습니다. 태양광을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려면 모듈 내 태양전지가 빛을 많이 흡수해야 해서 표면 유리에 반사 방지막 코팅 기술을 적용해 반사율을 최대한 낮추고 있습니다.

빛 반사율 비교

품명 구분	태양광 모듈	유리/플라스틱	붉은 벽돌	밝은 목재
반사율 (%)	5.1	8~10	10~20	25~30

* 자료 출처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Q2.
태양광 패널에서 많은 중금속이 나오지 않나요?

태양광 패널 전선 연결에 극소량의 납이 사용되기는 하나 우리나라에 보급된 태양광 모듈에는 크롬, 카드뮴 등 유해 중금속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국내 태양광 패널 4종을 대상으로 7가지 중금속(구리, 납, 비소, 수은, 카드뮴, 크롬, 6가크롬)에 대한 용출 및 함량 분석 결과 모든 시료에서 정량한계 이하로 검출되었습니다.

* 자료 출처 : 태양광 패널의 관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2018),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Q3.
태양광 모듈에서는 많은 전자파가 발생하지 않나요?

태양광 모듈에는 직류 전기가 흘러 전자파가 나오지 않고, 인버터에서는 전자파가 극히 미약하게 발생하나, 인체나 가축 등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인버터 실내의 변압기에 가장 강한 자기장이 발생되었지만(17.330uT), 이는 WHO 권고 기준(83.3uT)의 20% 이내로서 태양광발전소의 자기장 세기는 극히 미약합니다.

태양광 발전소 주변 전자파 세기

태양광 발전소 변압기	인버터 내부	인버터실 외부
17.330 uT	9.602 uT	2.226 uT

* 자료 출처 : 한국전자파학회지 2012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검증식)

Q4.
태양광 발전 시 소음이 발생하지 않나요?

해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은 밤에는 발전이 되지 않아 소음이 없으며, 낮에 발생하는 소음은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 소형 인버터 : 약 25dB로 인버터 가까이에서 들으면 냉장고 소음 정도
- 대형 인버터 : 약 60dB로 인버터 가까이에서 들으면 에어컨 소음 정도

* 자료 출처 :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사회적 갈등 해소 및 환경 생태적 대응전략(2020.5), 현안과제연구, 충남연구원 (사공정희, 장창석)

주택태양광 설치 지원사업 참여하기

사전계약이란?

신청기간에는 실질적으로 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접수해야 하고, 도 직접사업의 경우 선착순 접수이기 때문에 도민이 미리 참여시공기업을 선택하고 계약을 체결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새로 도입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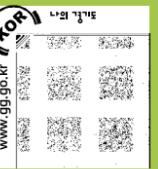
해당 사업의 실제 접수기간은 5월이지만, 일반적인 다른 사업 신청접수와 달리 접수 전 '사전계약'이라는 별도 절차가 있고 사전 준비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내용을 미리 파악해 준비하는 것이 좋다. 주택태양광 설치를 희망하는 도민이라면 다음 내용을 미리 숙지하도록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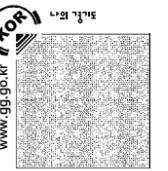
- 지원대상** 경기도 소재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 신청자격**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신청방법** 참여 시공기업 선택하여 사전계약 체결 후 사업 신청(선착순)
자세한 사항은 4. 21.(월) 게시될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은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시스템(www.ggre100home.or.kr)에 게시 예정
- 공고일자** 2025. 4. 21.(월)
※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시스템 홈페이지
- 사업신청기간** · 시·군 연계형 접수 : 2025. 5. 26.(월)~5. 30.(금)
※ 사전계약기간 : 2025. 5. 7.(수)~5. 23.(금)
· 도 단독(일시납, 분할납) : 2025. 6. 9.(월)~6. 13.(금)
※ 사전계약기간 : 2025. 5. 7.(수)~5. 30.(금)
- 지원내용** 주택용 태양광(3kW) 설비·설치비 일부 지원
- 사업신청 절차**

회원가입 → (사전계약기간) 참여 시공기업 선택 및 계약체결 → 사업신청 → 신청서류 검토 및 승인 → 자부담금 이체 → 주택태양광 설비 설치 → 설치 확인서 발급 → 보조금 지급 → 사후관리

지원금액

유형	총 설치비	지원금		자부담
		도비	시군비	
시군 연계	4,931천 원	1,479천 원 (30%)	20% 이상 *시군별 상이	50% 이하 *시군별 상이
도 단독 (일시납)	4,931천 원	2,465천 원 (50%)	-	2,466천 원 (50%)
도 단독 (분할납)	4,931천 원	1,972천 원 (40%)	-	2,959천 원 (60%)





우리 땅, 우리 바다를 가꾸고 일구는 사람들,
경기도가 응원합니다

경기도 기회소득
농어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에 주목하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자는 의의에서 시작한 기회소득. 이는 개인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과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특히, 작년부터 시행된 농어민 기회소득은 올해 지원을 더욱 확대해 더 많은 농어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지속가능한 농어업을 위해

농어민 기회소득은 지역사회를 유지하고, 건강하며 안전한 먹거리 생산, 식량안보 등 사회적 가치를 유지·발전시키는 농어민에게 보다 두터운 지원을 통해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시행되고 있다. 또한, 농어촌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의 발전을 위해 시행되는 농어민 기회소득은 경기도 농어업인들에게 월 5~15만 원(연간 60~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을 도입해 9개 시군 9,400명에게 42억 원을 지원했다.

기회는 커지고 혜택은 높였다!

올해는 용인시, 파주시, 양평군을 시작으로 화성·남양주·안산 등 24개 시군 농어민 21만 명에게 확대 지원된다.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을 기준으로 크게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환경농어민, 일반농어민이 지원 대상이다.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환경농어민에게 월 15만 원(연간 180만 원 이내), 일반농어민에게 월 5만 원(연간 60만 원 이내)을 시·군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4월 중 접수기간이 시군별로 다른 만큼 (동두천시, 양주시 4월11일까지, 여주시, 의왕시 4월23일까지, 광명시, 광주시 4월30일까지 등) 자세한 일정은 주소지 시군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 (farmbincome.gg.go.kr)에서 확인 후 신청하시길 바란다.



Tip.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p>신청기간 3. 4.(화)~4. 30.(수) ※ 시군 별로 기간이 다르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 필요</p> <p>지원 대상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되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 · 50세 미만 청년농어민(단, 40세 이상 50세 미만은 농어업경영체 등록 10년 이내) · 귀농어민(귀농·귀여한 지 5년 이내) · 환경농어민(친환경농수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 및 가축행복농장, 명품수산물) · 일반농어민(청년, 환경, 귀농어민 이외의 농어민)</p> <p>지급요건 해당 시군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이상 거주 및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연속 2년) 이상 영농영여, 농외소득 3,700만 원 미만인 자</p> <p>지급방식 · 기존 지역화폐 카드를 소지한 경우 해당 카드로 지급 · 지역화폐가 없는 경우 공카드를 발급하여 배부 및 지급</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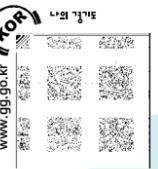
개개인의 기후행동이 RE100의 실현으로!



이은정 탄소중립지원센터
도민추진단
서부권역대표



텀블러 사용하기, 가까운 곳은 걸거나 대중교통 이용하기, 줌깅 참여하기 등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후행동들은 자칫 사소한 것으로 치부되기 쉬우나 많은 사람의 실천이 뒤따른다면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 경기도 기후행동 기회소득의 목표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이은정 대표는 탄소중립의 방향성이 '바로 지금!(Act Now), 함께, 바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은정 대표가 탄소중립의 방향성으로 삼는 것은 'SDGs'다. 이는 2015년 제70차 UN 총회에서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의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말한다.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라고도 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개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공론화된 것은 2015년, UN 총회부터입니다. 일전에는 단순히 '우리가 지구의 환경을 지키고 아껴야겠다'라는 정도의 담론이었다면, 이때부터는 우리의 일상, 현실과의 관련성이 크게 다가오고 또 인지되기 시작하면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기후위기는 우리의 일상, 일자리, 더 나아가 생존의 문제로까지 연결되고 탄소중립을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구체적 방향성이 제시된 것이죠"

이은정 대표는 과거 이 SDGs를 알리고 교육하는 기관에서 근무했었다.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 강사로 활동하며 환경문제, 나아가 탄소중립에 대한 관심이 커진 덕분이었다. 이는 단일국가에 기반한 근대적 시민성 개념에서 벗어나, 지구촌 사회가 겪고 있는 공통 문제의 해결 그리고 더불어 살 수 있는 공생 방안의 모색을 궁극적 목표로 삼는 교육이다. 두 교육활동 모두 국경, 종교, 정치적 이념 등을 초월해 전 인류가 한마음으로 추구해야 하는 가치를 다루는 것이기에, 이은정 대표는 탄소중립의 방향성을 제시하기에 앞서 '보편의 가치'를 한 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당면 위기의 필수 과제, 탄소중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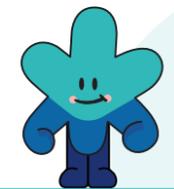
"탄소중립지원센터 도민추진단의 궁극적인 역할은 시민과의 접점을 찾는 거예요. 시민이면서 탄소중립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천

방향을 알고 있는 사람이 가교역할을 해 시민들의 실천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이른바 '봄업'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은정 대표는 이러한 활동에 마중물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이라고 덧붙였다. 환경교육 중심, 텀블러 사용하기, 가까운 곳은 걸거나 대중교통 이용하기, 줌깅 참여하기 등 개인의 선택에 맡겨두었던 탄소중립 실천의 한계를 벗어나 리워드를 통해 사람들의 구체적인 활동을 유도하고 인식을 확장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막연하게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권유하기보다는 '내가 텀블러를 사용하고 가까운 곳엔 걸어 다니는 것이 탄소중립이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은 좀 더 쉬울 거라 생각해요. 아직도 회의적인 시각들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분위기를 전환하는 데 분명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같은 활동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어지려면 탄소중립 활동을 개인의 선택사항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적절하게 규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은정 대표는 '다음 세대'에 빛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이 위기 상황임을 깨닫고 더욱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탄소중립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한다. '다음'이 아닌 '지금' 실천해야 할 기후행동에 더욱 많은 도민이 관심을 두고 참여하길 바란다.



With. 경기

경기도 기후행동 기회소득이란?

일상생활 속에서 온실가스 감축활동인 '기후행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에 주목해 평가와 보상을 하는 정책으로 전용 앱을 사용해 도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한 탄소감축 활동 실적을 기록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

김영랑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풀 아래 웃음짓는 샘물같이
내 마음 고요히 고운 봄 길 위에
오늘 하루 하늘을 우러르고 싶다.

새악시 불에 떠오르는 부끄럼같이
시의 가슴에 살포시 젖는 물결같이
보드레한 에머랄드 얇게 흐르는
실비단 하늘을 바라보고 싶다.



나의 공간과 지구의 환경을 위한 '정리의 선순환'

공간크리에이터 이지영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던 시절, 사람들은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다. 이때 눈길을 끈 TV 프로그램이 tvN의 <신박한정리>였다. 안 쓰는 물건이 잔뜩 적재돼 있어 발 디딜 틈이 없던 집을 새롭게 탈바꿈시켰고, 단순한 정리와 정돈을 넘어 공간에 행복을 더하는 노하우를 전달하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 중심에 공간크리에이터 이지영 대표가 있었다.

공간크리에이터로 커리어를 '정리'하다

공간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며 공간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이지영 대표는 스스로를 '정리를 잘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불혹을 앞두고 오랫동안 하던 일을 정리하고 공간크리에이터로 진로를 변경한 것 또한 커리어 정리의 일환이었다. "30대 후반이 되며 내가 제일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게 '정리'였죠. 미술을 하신 아버지 덕에 미감을 갖고 있었고 어려서부터 학급 미화를 도맡을 정도로 한정된 공간에 딱 들어맞도록 배치하는 걸 잘했거든요." 2017년, 대구에서 정리 서비스와 교육을 제공하는 회사 (주)새살을 창업한 이지영 대표는 2년 뒤인 2019년부터 유튜브 활동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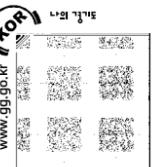
시작했다. 회사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한정적이지만 콘텐츠를 활용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공간과 정리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노하우를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이지영 대표가 생각하는 '좋은 공간'이란 무엇일까? "저는 집이 누구에게나 '돌아가고 싶은 공간'이 되었으면 해요. 바깥에서 일하고 공부하며 열심히 활동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너무 수고했어' 하고 나를 위로하고 다독이는 공간이요. 그러려면 집이 단정해야 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 더 좋겠죠. 이것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정리'예요."

돈도 아끼고 환경도 지키는 '정리의 선순환'

정리를 하다 보면 필요 없는 것을 버리고 비워내는 과정에서 친환경적인 선순환이 일어난다. 이런 점에서 정리를 잘하는 것은 '경기RE100'을 실천하는 활동이기도 하다. 경기도는 미래 세대에 기후위기 극복 부담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 공공·기업·도민이 손잡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 달성,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경기RE100 전략이다.

이지영

① 공간크리에이터로 tvN <신박한정리>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다. 현재는 주식회사 (주)새살의 대표인 동시에 유튜브 '정리왕' 채널과 강연을 통해 실생활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정리 노하우와 공간활용 아이디어를 전달하고 있다. tvN <신박한정리> 시즌 1, 2에 모두 출연하였으며, 미운우리새끼, 아침마당 및 다수의 라디오를 통해 대중과 만나고 있다.



“사실 정리를 하면 쓰레기가 정말 많이 나와요. 1.5톤짜리 트럭 두 대를 불러서 쓰레기를 가득 실어 버릴 때도 많아요. 이러한 것만 보아도 정리는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데 있어 가장 실질적이고도 일상적인 방법이죠. 경기 RE100이나 기후행동 기회소득처럼 경기도에서 직접 나서 탄소중립 실천에 적극적으로 도민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러한 활동에 정리도 한몫할 수 있겠고요. 쓸데없는 물건을 사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 대해서 잘 아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제대로 관찰해야 하고요.”

이것은 정리의 방식과도 궤를 같이한다. 정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다. 나의 취향을 잘 알고 우선순위의 꼭대기에 서부터 물건을 구입하면 버릴 일도 없다. 때로는 정리 과정에서 내 취향에 대해 알게 되기도 한다.

“제가 어느 날 유튜브에 ‘안 입는 옷을 정리해서 그 옷의 공통점을 찾아봐라’라는 콘텐츠를 업로드했어요. 구독자 한 분이 댓글을 달았는데, 공통점이 ‘여행지에서 산 옷’이라는 거예요. 화려한 원피스, 코끼리바지, 큰 밀짚모자 이렇게 평소에 활용하기 어려운 아이템을 잔뜩 사 온 거죠. 어찌 보면 외국에서 쓰레기를 사서 우리나라에 가져와서 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여행 가면 잘 먹고 잘 놀고만 온대요. 이렇게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소비패턴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경기 RE100이나 기후행동 기회소득처럼 경기도에서 직접 나서 탄소중립 실천에 적극적으로 도민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옷은 구입한 뒤 낡아서 해질 때까지 입지만 어떤 옷은 한 번 입고 옷장 구석에 넣어두고 10년 뒤에 발견하기도 한다. 내 취향을 잘 알아서 자주 입을 옷만 구입하는 것. 이렇게 하면 돈도 아끼고 환경도 지킬 수 있다. 이것이 이지영 대표가 정의하는 ‘정리의 선순환’이다.

정리왕의 소비 1원칙 ‘충동구매를 멈출 것’

집 안을 정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버려지는 물건이 발생한다. 이지영 대표는 ‘꽤 쓸만하지만 나에게 필요 없는 물건’은 기증하는 것을 권한다.

“버리려고 하니 새것이거나 상태가 너무 좋아서 망설임 경험 누구나 있을 거예요. 그런 물품이 많다면 밀알복지재단 굿윌스토어 물품 기부를 추천해요. 여기서는 기증한 물건의 분류, 가격표 붙이기, 진열 등을 장애인로인들이 도맡아서 처리하더라고요. 그렇게 굿윌스토어 매장에서 판매가 되고 그 수익으로 장애인

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거죠.”
그렇다면 깨끗하게 집을 정리한 후, 우리는 어떤 물건을 구입해야 할까? 이지영 대표는 ‘무엇을 살까’보다는 ‘무엇을 사지 말아야 할까?’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요즘 가치소비가 대세잖아요. 외적인 요소가 아니라 신념이나 가치를 지키는 소비가 중요해요.”

이지영 대표가 전하는 ‘피해야 할 소비’. 먼저 1+1과 핫딜을 피해야 한다. 싸다고 물건을 자주 사면 다 소비하지도 못하고 보관할 공간도 부족하게 된다. 소비할 수 있을 만큼만 구입해야 나의 공간을 충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소비도 하지 말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기분이 나쁘거나 울적할 때 소비를 한다. 그런데 그 물건을 보면 좋지 않은 기분이 떠오르기 마련이다. 차라리 기분이 안 좋을 땐 청소나 정리를 해보는 걸 권한다.

“저는 머리가 복잡할 때 정리를 해요. 약간 명상 효과가 있거든요. 정리를 하다가 새로운 통찰을 얻기도 해요. 얼마 전에 제가 책 정리 방법을 바꿨어요. 원래는 완독하고 나면 뒷면을 보이게 꽂아두었거든요. 다시 보고 싶은 책은 표지가 보이게 꽂아두고요. 그런데 지난해부터 책을 에세이, 자기계발 등 장르별로 분류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계발 서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원래 저는 소설이나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2025년 목표를 ‘소설을 많이 읽어서 창의력 키우기’로 정했어요.”

정리는 꼭 공간에 국한되지 않는다. 시간, 커리어, 인간관계 등 살아가는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 나를 관찰하며 장점과 단점을 알아내고, 일과 물건의 중요도를 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분류하는 것. 이것이 이지영 대표가 정의하는 ‘정리’다. 그래서 정리를 잘하면 나의 공간과 시간, 커리어, 관계가 모두 나은 방향을 향해 나아간다. 그래서 이지영 대표는 모두가 정리를 잘하는 세상을 꿈꾼다.

“정리를 업으로 삼아보니 생각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정리를 어려워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왜 그렇게 정리가 어려울까?’ 생각해 보니 정리에 대해 가르쳐주는 곳이 없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생활습관을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쉽고 재밌게 정리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나 플랫폼을 만들어보고 싶어요.”
인생의 1막이었던 유아교육을 정리하고 공간크리에이터라는 새로운 직업으로 인생 2막에 도전했던 이지영 대표. 이제는 유아교육과 정리라는 아이টে를 결합해 새로운 인생 3막을 꿈꾸고 있다.

Tip. 전국에서 옷장 정리 제일 잘하는 꿀팁!

- ① **가구 배치를 통해 공간을 활용하자**
옷의 양이 많지도 않은데 어수선했어 보인다면 가구 배치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행거 아래쪽 공간을 재활용한다든지, 소품 박스들을 서랍형으로 관리한다든지 등의 방법을 통해 버려지는 공간을 활용하자.
- ② **이것만은 사지 마라! ‘압축팩’**
이불, 철 지난 옷 보관에 압축팩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를 묵혀둔 채 2년 이상 방치하고 있다면 그냥 비우는 것이 답이다. 압축해 놓은 옷은 찾기도 힘들뿐더러 옷감도 상하기 쉽기 때문이다.
- ③ **옷은 걸어두는 것이 좋다**
옷을 가족별로 분류하여 배치하고 그 안에서 또 계절별로 분류한다. 속옷, 양말 등 작은 옷가지도 마찬가지로. 또한, 밝은 옷을 앞쪽에, 짙은 색은 가장 안쪽에 걸어두는 것이 공간을 더욱 넓어 보이게 하는 방법이다.
- ④ **액세서리와 소품도 정리가 필요하다**
귀걸이, 반지 등 액세서리는 투명한 수납함을 활용해 보관하고 머플러, 가방, 모자는 걸어두면 형태를 오래 유지할 수 있고 한눈에 보여 찾아 사용하기 쉽다.

삼균주의(三均主義)를 통해 독립운동을 펼쳐나간 조소앙 선생

일제강점기 대한독립의군부 부주석, 임시정부 국무위원, 한국독립당 부위원장 등을 역임한 독립운동가이자 정치사상가이며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을 골자로 한 삼균주의를 제창하여 임시정부 정강정책의 바탕으로 삼은 인물, 바로 조소앙(趙素昂, 1887. 4. 10.~1958. 9. 10.) 선생이다. 그는 임시정부의 외교부장으로 한국이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을 통해 독립을 보장받는 데 큰 역할을 하기도 했다.



조소앙 선생 / 출처 : 보훈후 공훈록

적극적인 항일운동과 대동단결선언

일찍 개화파가 된 만형 조용하의 영향으로 개화와 서양 지식에 일찍 눈을 뜬 조소앙 선생은 1902년 성균관에 최연소자로 입학할 만큼 수학적능력이 뛰어났다. 성균관 수료 후 황실유학생에 선발되어 독일 도쿄부립제일중학교(東京府立第一中學校)에 입학한 선생은 학생 때부터 일제의 만행을 비판하고 행동하는 데 두려움이 없었다. 1910년 한국이 일제에 강제 합병되자 '한일합방성토문' 등을 작성하여 비상대회의 비밀 소집을 도모하다 왜경에 발각되어 구금당하기도 했고, 1912년에는 항일운동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중국으로 망명하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체포되기도 했다.

이후 북경을 거쳐 상해로 망명한 선생은 박달학원(博達學院)이라는 교육기관을 개편·창설하여 청년 혁명가들을 육성하고 종교를 통해 국내외 동포를 하나로 결집하기 위해 '육성교(六聖教)¹'라는 구국종교를 만들기에 이른다. 이 같은 사상을 바탕으로 선생은 1917년 7월에 상해에서 '대동단결선언(大同團結宣言)'을 신규식·박은식·신채호 등 14명의 명의로 발표하고 각계 인사에게 발송했다. 이 선언문은 주권재민² 과 대동사상에 기초한 선구적인 독립선언이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근간이 된 삼균주의

선생의 일생에 있어 '삼균주의'를 빼놓을 수 없다. 삼균이란 개인·민족·국가 간 균등을 말하고, 정치적 균등·경제적 균등·교육적 균등을 의미한다. 국내의 모든 권력과 부가 일제에 의해 독점된 현실에서 한민족의 고유한 역사적 전통에 의한 민족의 활로를 추구하였다. 선생의 삼균주의는 1931년 4월 임시정부 차원에서 처음 개진되었다. 삼균주의 이론 체계를 정립한 임시정부의 <대외선언>을 재중독립운동자 전원에게 배포하였으며, 5월에는 남경에서

1 단군의 독립사상, 석가의 자비제중(慈悲濟衆), 공자의 충서일관(忠恕一貫), 소크라테스의 지덕합치(知德合致), 예수 그리스도의 애인여기(愛人如己), 마호메트의 신행필용(信行必勇)을 연결하여 육성일체화(六聖一體化) 시키고자 한 것
2 나라의 권력이 국민에게 있음



북한 애국열사 조소앙 묘사진

조소앙 선생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교부장을 역임할 때 작성한 성명서(1944. 6. 10.) / 출처 : 독립기념관



개최된 중국 국민당정부의 국민회의에 제출하였다. 1941년 임시 정부는 삼균주의에 입각한 대한민국건국강령을 공표하였다.

독립을 위한 외교활동 그리고 광복 후의 강제 납북

무엇보다도 선생의 두드러진 활약은 중·미·영 등의 연합국을 상대로 한 외교활동이었다. 한국 독립운동에 물질적 지원과 임시정부 승인을 위해 중국정부에는 보다 구체적인 지지를 요구하는 한편, 미·영 등 연합국에는 임시정부 승인을 끈질기게 요구하였다. 이러한 노력 끝에 1943년 '카이로선언'과 1945년 '포츠담선언'에서 독립을 보장받은 것은 외교활동의 큰 실적이었다.

한편, 광복 후 종래의 단정 반대를 철회하며 총선거에 출마한 선생은 1950년 5월 30일 제2회 총선거에 서울 성북구에 출마하여 전국 최고 득표(34,035표)로 당선되었다. 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는 듯했으나, 6·25전쟁으로 서울에서 강제 납북되고 만다. 납북된 선생은 전쟁 아래에서 가혹한 생활을 견뎌야 했고, 전후는 박헌영(朴憲永)의 숙청 등 정치적 사건 때마다 시류에 휩쓸려야 했다.

1958년 9월 10일 선생은 임종에 즈음하여 "삼균주의 노선의 계승자도 보지 못하고 갈 것 같아 못내 아쉽구나", "독립과 통일의 제단에 나를 바쳤다고 후세에 전해다오"라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선생은 이때 순국하여 평양 남쪽 애국지사 묘역에 고이 잠들어 있다. 정부에서는 선생의 공훈을 기려 1989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다.

조소앙 선생은 한국 독립운동에 물질적인 지원과 임시정부 승인을 위해 중국정부에는 보다 구체적인 지지를 요구하는 한편, 미·영 등 연합국에는 임시정부 승인을 끈질기게 요구하였다. 이러한 노력 끝에 1943년 '카이로선언'과 1945년 '포츠담선언'에서 독립을 보장받은 것은 외교활동의 큰 실적이었다.



경기도에 SOS를 보내세요! 간병 SOS 프로젝트

고물가로 인한 인건비 상승과 함께 최근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돌봄 수요가 증가하면서 간병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간병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환자가 부담하는 일평균 간병비도 12만 7,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경기도에서는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슬기로운 경기생활 코너를 책임질 에디터들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까요?



Q.
간병 SOS 프로젝트가
뭐예요?
이게 왜 필요한 거죠?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처럼 갈수록 커지는 간병비 부담은 환자는 물론이고 그를 돌보는 가족의 일상까지 파괴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도민 개인의 간병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평범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Q.
쉽게 말해
간병비를
준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1인당 연간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는 6인 공동병실 간병비(1일 2만 원) 기준 6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인데요. 1인당 연간 지급금액 한도(120만 원) 내에서는 지급 횟수의 제한 및 회당 지급금액의 제한이 없습니다.



Q.
어떤 사람이
지원받게
되나요?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에 입원하여 **간병 서비스를 받은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Q.
꼭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간병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자들은 ‘경기민원24(gg24.gg.go.kr)’ 웹사이트를 통해 24시간 365일,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간병 SOS 프로젝트 한눈에 보기

- 지원대상** 경기도 거주 저소득계층 65세 이상 어르신 중 병원에 입원하여 간병 서비스를 받으신 분
- 지원금액** 1인당 연간 최대 120만 원
- 신청시기** 2025년 2월 20일부터 수시 신청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경기민원24(gg24.gg.go.kr) 웹사이트 온라인 신청
- 지원절차** 간병 서비스 이용 → 간병비 지급 → 간병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참여시군** 15개 시군(고양, 화성, 남양주, 평택, 시흥, 광주, 광명, 이천, 안성,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경기민원24 웹사이트 바로가기



맑은 공기를 부탁해! 기후변화로부터 나무를 지키는 일

경기도는 도내 산림 관리는 물론, 전국 최초로 ‘보호수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1,049종에 달하는 경기도 내 보호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따스한 봄바람, 싱그러운 새싹이 완연한 봄을 느끼게 하는 요즘, 푸르른 나무와 함께 생동하는 봄의 에너지를 담백 느껴보면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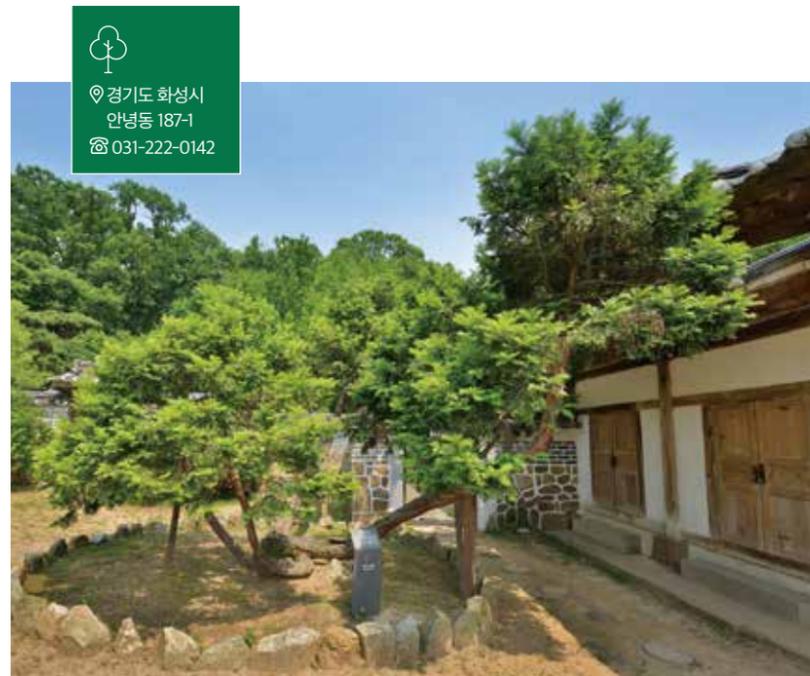
아름다운 조선 왕릉 속 천연기념물 ‘화성 용릉 개비자나무’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에 있는 아름다운 조선 왕릉인 화성 용릉은 조선 제21대 왕 영조의 아들 사도세자와 혜경궁 홍씨가 함께 묻힌 용릉과 그의 아들인 조선 제22대 왕 정조와 효의 왕후가 함께 묻힌 건릉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어린이와 가족, 연인들의 나들이 장소로 인기가 높다. 용릉 재실 내에 있는 개비자나무는 2009년 9월 16일 대한민국의 천연기념물 제504호로 지정되었다. 개비자나무는 늘 푸른 바늘잎 작은키나무로 보통 높이 3m 이내로 자란다. 그런데 용릉 개비자나무는 높이가 4m에 이르고 줄기 둘레도 80cm에 이르는 등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 또한 보존 상태도 우수하여 우리나라 개비자나무를 대표하는 가치가 있으며, 용릉 재실과 관련된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크다.

공기질 관리하는 건강한 나무 한 그루의 힘

건강한 나무 한 그루는 공기 1L당 7,000여 개의 먼지 입자를 줄여 주고, 연간 총 35.7g의 미세먼지를 흡수한다. 산림청에서 발표한 산림의 공익적 가치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 기능 평가액은 2020년 기준 총 259조 원으로, 국민 1인당 연간 499만 원의 산림 혜택을 받는 셈이다. 특히, 우리가 받는 산림의 가장 큰 혜택은 ‘온실가스의 흡수 및 저장(97.6%)’이다. 이 외에도 아름다운 산림 경관을 바라보는 것(31.8%), 산림에서 휴양하는 것(28.4%), 토사 유출 방지(26.1%)와 산림 정수(15.2%) 등 숲과 나무가 있음으로써 얻는 혜택들이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천년의 생명력 가득한 경기도 보호수 탐방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는 지난해 도내 1,047본 보호수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경기도 보호수 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보호수는 지역에서 수백 년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소중한 자산으로 「산림보호법」에 따라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어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다. 경기도의 대표적 보호수를 살펴보고 산림과 나무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겨봐도 좋겠다.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187-1
☎ 031-222-0142

백송의 기품이 남다른 희귀 소나무 ‘고양 송포백송’

백송은 소나무과에 속하는 상록 침엽 교목으로, 나무껍질이 넓은 조각으로 떨어져 전체가 흰빛을 띠는 특징이 있어 예로부터 백송(白松) 또는 백골송(白骨松)으로 불렸다. 일산서구 덕이동에 있는 고양 송포 백송의 가장 유력한 유래는 조선 세종(1418~1450) 때 김종서가 개척한 육진에서 복무하던 최수원이 고향에 돌아오는 길에 가져다 심었다는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한동안 이 나무를 중국에서 온 나무라고 하여 ‘당송(唐松)’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송포 백송의 크기는 높이 11.5m, 둘레 2.39m이다. 그 기품도 남달라 한 눈에 보아도 수령이 오래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약 250살 정도로 추정된다. 196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역사적 가치가 큰 재실 내 가장 큰 회양목 ‘여주 효종대왕릉 회양목’

경기도 여주시 효종대왕릉은 인조의 둘째 아들이자 조선 제17대 왕인 효종(재위 1649~1659)과 왕비 인선 왕후 장 씨가 모셔진 쌍릉이다. 영릉 재실에 있는 효종대왕릉 회양목은 2005년 대한민국의 천연기념물 제459호로 지정되어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왕대리
☎ 031-885-31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1000-8



수령은 약 300년으로 추정되며, 나무의 높이는 4.4m, 가슴 높이의 줄기 둘레는 동쪽이 29cm, 서쪽이 43cm이다. 수관 폭은 동서 방향이 4.4m, 남북 방향이 6.5m이다. 효종대왕릉 회양목은 재실 내에 크게 자란 나무로 쉽게 찾아볼 수 없어 생물학적인 가치가 큰 노거수일 뿐만 아니라, 1673년 조성한 효종대왕 영릉 재실과 오래도록 함께한 역사성이 큰 나무이다.

기회기자단이 본 별별 경기

경기도 기회기자단이 전하는 경기도 소식 이모저모



#01



<눈물의 여왕> 드라마 속 그곳! '일월수목원' 봄맞이 이야기

지난해 많은 사랑을 받았던 tvN 드라마 <눈물의 여왕> 속 명소인 '일월수목원'은 수원시에 위치한 도심형 생태수목원으로, 수원의 새로운 힐링 명소로 자리 잡으며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6종 52,000여 주 429,000여 본의 식물을 보유한 것은 물론, 이국적이고 아름다운 식물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화려한 꽃을 피우는 다육식물과 독특한 형태를 지닌 선인장은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봄의 전령 나비와 미리 만나 봄', '정원가, 다산', '모네×일월 특별기획전' 등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도 만나볼 수 있다.

황수진 기자(일반기자단)



경기도청년봉사단 7기 발대식, 청년 Chill(칠)하다!

지난 3월 8일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경기도청년봉사단 발대식이 진행되었다. 올해로 7기를 맞이한 경기도청년봉사단은 2019년 첫 출범한 이후 1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공익, 아동, 노인, 소외계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사전 행사는 경청봉 History, 리더를 이겨라, 봉사유형 검사, 사전투표, 플루용 캠페인 등 많은 부스를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본행사의 하이라이트는 감정 7인의 소통 프로그램이었다. 진로 & 취업, 돈 & 재테크, 번아웃 & 심 등 청년의 단골 고민을 주제로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동 퍼포먼스로 막을 내린 이번 발대식을 통해 봉사단은 봉사과 도전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다. **박도현 기자(대학생기자단)**



#02



11~18세 경기도 여성청소년 혜택 챙겨주세요!

2025년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이 3월 4일부터 1차 온라인 접수를 시작했다. 작년에는 월 13,000원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했다면, 올해는 월 14,000원으로 작년 대비 월 1,000원 지원금이 늘었다. 신청 대상은 2007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11~18세 여성청소년이다. 지원금은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되어 모바일 발급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엔 IC카드 발급이 허용된다.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한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 24)에서 여성생리용품 일체(생리대, 탐폰, 생리컵 등)를 구입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민원 24 사이트(gg24.gg.go.kr)에서,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고규빈 기자(청소년기자단)



#03

안중근 의사 후손이 함께한 광복 80주년 3·1절 기념식

3월 1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는 광복 80주년 3·1절 기념식이 진행됐다. 카자흐스탄, 호주, 미국 등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영상메시지가 소개되었고, 상해에 거주하는 후손들과의 영상통화도 진행됐다. 또한, 2세대부터 5세대에 이르는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참석해 기미독립선언서를 낭독하는 특별한 자리도 마련되었다. 경기도는 이 자리에서 광복 80주년을 맞아 경기도 독립운동가 80인을 선정하여 3·1절을 시작으로 오는 8월 15일까지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첫 독립운동가로 '조소앙 선생'을 선정·발표했다. 이번 기념식은 미래 세대에도 독립정신의 의미를 전하는 뜻깊은 기회가 되었다.

임가을 기자(꿈나무기자단)



#04



공레오 기자(꿈나무기자단)

어린이들에게도 안성맞춤, '2025 경기국제보트쇼'

2025년 경기국제보트쇼가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렸다. 18년째 운영되고 있는 경기국제보트쇼는 요트 및 보트 등 해양관광과 관련된 다채로운 제품과 체험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2배 증가한 17개의 체험부스가 운영되어 보다 풍성한 콘텐츠가 가득했다.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의 대형 풀장에서 구명뗏목 체험을, 트레일러 체험관에서는 후면에 트레일러를 달고 있는 차량을 직접 운전해볼 수 있었다. 이 외에도 카약·미니 호버보트 제작, 심폐소생술, 서핑 중심잡기 등 다채로운 체험이 마련됐다. 경기국제보트쇼는 매년 새로운 체험과 전시로 찾아온다고 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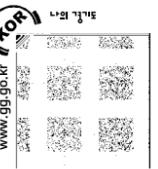
2025 경기도 기회기자단, 새로운 시작을 알리다

지난 2월 28일, 경기도청 다산홀이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다. 초등학교부터 성인까지 352명의 경기도민으로 구성된 '2025 경기도 기회기자단'이 위촉장을 받고, 기자증을 목에 걸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 올해 기회기자단은 꿈나무기자단, 청소년기자단, 대학생기자단, 일반기자단으로 구성돼 도정 소식과 지역 현안을 도민의 시선에서 취재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발대식을 마친 기자단은 연말까지 '기회수도 경기도'의 다양한 기회를 발굴하고, 이를 도민들에게 알리는 소통메시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들이 취재한 소식은 경기도 공식 블로그, 경기도뉴스포털, SNS 등을 통해 도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윤지원 기자(꿈나무기자단)



더 많은 기사와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공식
블로그에서 만나보세요!





원미동 사람들의 문화 아지트 우리 동네 독립서점 '원미동 용서점'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도 수록된 소설 <원미동 사람들>. 작가 양귀자가 경기도 부천시 원미동이라는 삶의 공간을 무대로 소시민들의 삶을 압축해서 보여준 연작소설이다. 소설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1980년대, 그렇다면 현재의 원미동에는 무엇이 있을까? 바로 동네 사람들의 문화 아지트, 용서점이 있다.

<원미동 사람들>의 그 골목에서 만나는 책방

'이런 곳에 책방이 있을까?' 생각이 드는 지하 1층의 공간. 서점 문을 열면 40~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방문자를 반긴다. 나무 냄새가 가득한 넓은 실내에는 클래식 음악이 잔잔히 흐르고 책장에는 중고 책과 새 책이 빼곡하다. 책방 한편에는 그림작가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원미동 용서점은 단순히 책을 취급하는 서점을 넘어서 지역의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용서점이 원미동에 자리 잡은 것은 4년 전이지만 사실 시작은 2018년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에서였다. 역곡동 용서점은 지역 주민들의 사랑방이었다. 동네 사람들은 근처 재래시장에 왔다가 목이 마르면 들르기도 했고, 때로는 음악을 듣거나 책방지기와 수다를 떨기 위해 용서점을 방문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서점의 기능이 확대되었다. 생활용품을 만드는 주민을 만나서 소품샵의 역할이 추가되었고, 음악을 하는 주민 덕분에 인디밴드 공연장이 되기도 했다. 이 과정을 통해 책방지기 박용희 씨는 용서점을 단순한 책방이 아닌 '이웃들이 문화를 누리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33m²(약 10평)이라는 공간적 제약이 있었다. 그래서 부천시 내의 넓은 공간을 찾아다녔고 그렇게 현재 원미동 용서점의 공간과 만나게 되었다. 양귀자 작가의 <원미동 사람들>을 인생 책으로 손꼽는 책방지기에게는 운명 같은 만남이었다.



이웃과 함께 누리는 문화공간

지하 40여 평 남짓한 공간에는 잘 진열된 책이 가득하다. 문학과 예술에서부터 실용 서적까지 장르가 다양하다. '아주 유명하지는 않지만 읽어볼 가치가 있는 책'. 예전부터 출판업계와 서점에 몸담아온 책방지기가 서적을 선별하는 기준이다. 벽과 맞닿은 서가에는 책을 읽을 편안한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중간중간 마련된 콘서트에서 방문객을 위한 책방지기의 따뜻한 배려가 느껴진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책방지기와 차 한 잔을 함께 하며 책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다.

넓은 중앙공간은 공연장으로 활용 가능하다. 중앙의 낮은 책장을 밀면 책을 읽는 공간이 관객석으로 바뀐다. 서가 아래 앉을 수 있는 공간이 2단으로 마련되어 생각보다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 실제로 책방지기는 재즈공연과 작가와의 만남 등 몇 가지 이벤트를 준비 중이다. 벽 한편에는 글쓰기 모임 '써용'과 마गर러들을 위한 모임 '주간 불꺼용', '우리말 시쓰기' 모임 안내 문구가 붙어 있다. 대부분의 모임은 서점을 찾는 고객의 제안으로 만들어졌는데, 시간과 취향을 방이라는 별도의 공간에서 이뤄진다. '써용'은 코로나19 이전 역곡동에서 시작한 모임이었는데, 한 때는 인원이 100명까지 늘어나 8명씩 분할해서 모임을 진행했다. 시쓰기 모임은 30년 이상 우리말 지킴이로 지내며 한국말사전을 새로 쓰고 있는 최종규 작가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다. 용서점은 동네책방에 관심이 많은 최종규 작가와 꾸준히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데, 지난 2월 원미동 용서점의 첫 번째 전시도 최종규 작가의 전국 책방 사진



전시였다. 지금은 우지연 그림작가의 작품이 전시공간을 채우고 있다. 빈티지 그릇이나 귀여운 소품도 만나볼 수 있는데, 용서점을 운영하며 만난 사람들에게 의해 이곳에 오게 되었다. 이처럼 용서점의 공간에는 그동안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독립서점이 평균적으로 젊은 여성고객의 비율이 높은 데 비해 용서점을 찾는 고객들은 연령대가 높은 편이다. 동네에 거주하는 주민 연령대가 높기 때문이다. 원미동 주민들은 동네를 오가다 용서점에 들러 자리를 잡고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으며 시간을 보낸다. 때로는 서점시기와 대화를 나누거나 차를 마시며 작업을 하기도 한다. 책방지기는 용서점이 단순히 책을 사러 오는 곳이 아니라 이곳에서 좋은 시간을 누리고 다양한 경험을 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전시, 공연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원미동 용서점이 유명해져서 멀리서 찾아오는 책방이 되기를 바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 동네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는 지역의 동네책방으로 자리 잡고 싶습니다. 이곳이 주민들에게 '좋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 되었으면 해요. 책을 읽으면서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을 누리고, 전시나 음악감상 등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책방지기의 바람대로 용서점이 앞으로 책과 독서를 넘어 다양한 문화를 교류하고 향유하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

Info.

원미동 용서점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136번길 24 지하 1층 B02호

① 화~토요일 11:00~20:00

※ 매주 일·월 정기 휴무

Tip.

원미동 용서점 책방지기 박용희 씨의 추천도서 3선



원미동 사람들
양귀자 | 쓰다

경기도 부천시 원미동을 무대로 1980년대 도시민들의 삶을 그려낸 연작소설집으로 용서점이 원미동에 자리 잡는 데에도 영향을 준 소설



사람을 안다는 것

데이비드 브룩스 | 웅진지식하우스
인간의 본질과 관계에서 대해 탐구하며, 물질적 가치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회에서 정신적 기쁨에 대해 고찰하게 해주는 책



뉴앙스

성동혁 | 수오서재
어린 시절 다섯 번의 대수술을 받고, 소아 난치병 환자로 병동에서 긴 시간을 보낸 성동혁 시인이 들려주는 삶과 사람 이야기



Tip.

책 읽는 평화광장 '경기야외도서관 북큐레이션' 운영



빈백, 캠핑의자, 인디언텐트 등이 마련된 경기평화광장에서 큐레이션된 책을 읽으며 문화예술공연, 도민마켓, 독서문화페스타, 야외영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즐겨볼까요?



경기평화광장 바로가기

경기야외도서관 (매주 금·토·일, 11:00~17:00)	경기평화광장 야외도서관 조성(빈백, 텐트, 캠핑의자 등) · 상반기 : 4. 18.(금)~6. 15.(일)/9주 · 하반기 : 9. 5.(금)~10. 26.(일)/8주
독서문화페스타 (토, 11:00~17:00)	북부청사 봄-가을 낭만 축제 · 상반기 : 5. 31.(토) · 하반기 : 10. 25.(토)
문화예술공연 (매주 토요일, 14:30~17:00)	버스킹, 마술쇼, 독서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 · 상반기 : 4. 19.~6. 14.(매주 토요일) · 하반기 : 9. 6.~10. 26.(매주 토요일)
야외영화상영 (매주 토요일, 18:30~21:00)	광장에서 누구나! 야외 잔디발명화제 개봉 8. 16.~9. 7.(4주간)



과거에는 책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동우·신경선 가족의 책 만들기 체험

책 만들기를 좋아하는 아들들에게 책 만드는 과정을 직접 배우고, 경험 시켜주고 싶어 네 식구가 파주 활판인쇄박물관을 찾았다. 이곳에서 네 사람은 우리나라 전통 기법인 오침 제본을 통해 책을 만들어 보며 특별한 하루를 보냈다.



책 만들기
체험에 도전한
이동우·신경선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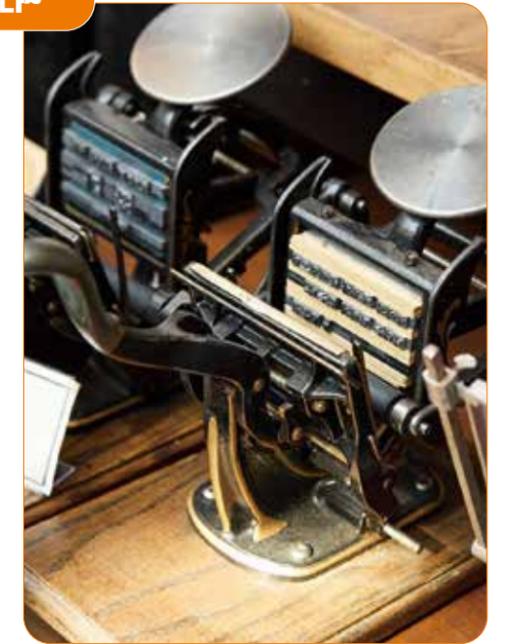
우리나라 책 만들기의 역사를 배우다

파주에 위치한 활판인쇄박물관은 세계 최초 활판인쇄국인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활판인쇄술과 오침제본술 등 출판 및 활판 인쇄의 역사를 배우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22톤, 2만 2천 종, 3천8백만 자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활자를 보유한 활자의 숲에서 이동우·신경선 부부와 아들 이유준·이준원 군은 우리나라 전통 책 만들기 기법인 오침제본술을 체험했다. 들어서자

마자 눈길을 사로잡는 빠곡한 활자판과 끝없이 펼쳐진 책, 역사 속 인쇄기를 구경하며, 아이들의 호기심은 점점 커져만 갔다. 신경선 씨는 “평소 책 만들기 활동을 좋아하던 아이들이 책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어요”라며, 소감을 전했다. 책 만들기의 완성은 책을 읽는 것이라는 선생님의 말씀대로, 오늘 밤 자신이 만든 책을 읽을 거라며 환하게 웃는 아이들은 이 특별한 경험을 통해 책에 대한 소중한 추억을 남겼다.

예전엔 책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직접 쓰고 력을 칠해

만들어보는 세상 하나뿐인

나만의 책!



아이들이 책 만들기라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아요. 덕분에 가족과 함께 특별하고 행복한 주말 나들이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앞으로 책을 가까이 두고 지내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 경험을 통해 책과 친숙해진 것 같아요. 또 오침제본이라는 우리나라 전통 방식을 배울 수 있어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유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책 한 권

똑딱!

Info.

활판인쇄박물관
경기도 파주시 문발동 524-3 활자의 숲
☎ 0507-1305-9151



봄에 누리는 특별한 즐거움 갯벌의 작은 보석, 바지락

찬바람이 물러가고 봄바람이 살살 불어오는 시기,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가 봄의 활력을 느끼기 좋은 계절이 찾아왔다. 꽃구경, 피크닉 등 다양한 방법으로 봄의 기운을 만끽할 수 있지만, 그중에서도 제철 바지락을 맛보며 봄의 맛과 영양을 한껏 느끼는 것은 특별한 즐거움이다.



겨우내 추위를 이긴 봄철 바지락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고 입맛을 돋우는 제철 음식을 즐기는 것은 그때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행복이다. 따뜻한 기운이 물씬 풍기는 봄에 만날 수 있는 바지락은 갯벌의 작은 보석이자, 봄을 대표하는 보약이라 불릴 정도로 풍부한 맛과 영양을 자랑하는 봄철 음식이다. 봄이 오면, 갯벌 깊숙이 숨어 있던 바지락이 활발히 활동을 시작한다. 초여름 본격적인 산란기를 앞두고 갯벌의 흙을 먹고 뱉으며 속을 단단하게 채운 바지락은 통통한 살과 쫄깃한 식감, 입안 가득 퍼지는 깊은 고소함으로 우리 몸에 활력을 불어넣고, 나른한 몸을 깨우는 최고의 음식으로 꼽힌다.

칼로리가 낮고 영양이 풍부한 바지락은 타우린 성분이 들어 있어 콜레스테롤 제거와 혈액순환을 돕고, 철분이 풍부해 빈혈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또한 비타민B군과 필수 아미노산인 메티오닌, 시스틴 성분 등이 가득해 근육 형성과 상처 치유, 간 기능 회복에 도움을 주며, 원기 보충, 피로 회복, 숙취 해소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

바지락이 가장 좋아하는 경기 갯벌

과거 안산 대부도와 시흥 오이도 사이는 어족자원이 풍부한 바다로, 갯벌이 광활한 곳이었다. 대부도는 여의도 14배에 이르는 큰 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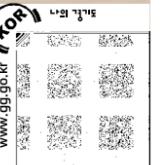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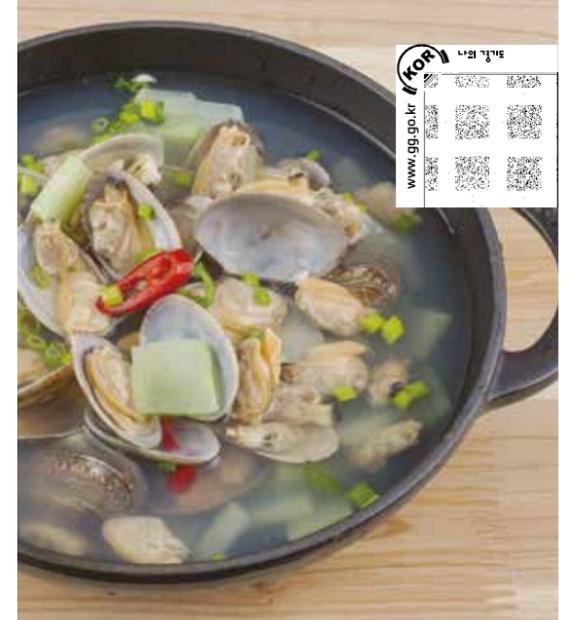
With. 경기



경기도 바지락, 이것이 궁금해!

바지락은 수심 3~4m 사이의 모래, 자갈, 진흙이 섞인 지역에 서식하며 다른 패류들에 비해 환경변화에 민감하지 않아 경기 갯벌환경에 안정적으로 정착이 가능한 품종이다. 따라서 경기도 전 연안 갯벌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경기도의 대표 패류로 잘 알려져 있다. 또한 국립수산물연구원이 진행한 바지락 어장 서식지 적합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서해안이 갯벌 노출시간 2~4시간, 갯벌 퇴적물의 모래함량 60~80%, 유속 0.3~1.0m/s 환경으로 바지락의 최적 서식 조건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경기만에 서식하는 바지락 우량 어미를 채취하여 연구소에 키운 바지락 어린 조개를 수산 자원 복원을 위해 안산, 화성, 시흥, 평택 갯벌에 방류하는 등 고품질의 경기도 바지락 생산에 지속적인 노력을 가하고 있다.

* 자료 : 경기도해양수산물연구소, 국립수산물연구원



으로 바지락, 낙지, 송어 등 다양한 해양 생물이 서식하는 곳이었다. 이곳에 조개구이, 바지락칼국수 집들이 줄줄이 있는 이유겠다. 현재는 다양한 공장으로 산업단지가 형성되었지만, 여전히 대부도 갯벌은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완만한 간척지가 넓게 펼쳐져 있어 갯벌 체험을 즐기기에 좋은 곳으로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관광 명소다. 바지락은 최대 어장인 서해에서뿐만 아니라 동해, 남해에서도 쉽게 발견되어 '서민 조개'로도 불린다. 경기 갯벌에서는 대표적으로 바지락, 굴류, 고등류가 전체 생산량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는데 그중 바지락이 약 44%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생산량을 자랑한다. 바지락을 고를 때는 해산물인 만큼 살아있는 생바지락을 고르는 것이 좋다. 껍데기가 깨끗하고 싱싱하며, 입이 닫혀 있는 바지락이 최상품으로 평가받는다.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 생물 백과사전인 정약전의 『자산어보』 기록에 따르면, 바지락은 천합(淺蛤)이란 이름과 함께 '살이 풍부하여 맛이 좋다고 기록되어 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바지락은 조개류 중 가장 시원한 국물 맛을 내는 조개로 사랑받아 왔다.



전통을 잇는 전국 유일의 바지락 찜장, '대부객주'

바지락은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는 좋은 식재료다. 특히 바지락을 활용한 대표적인 요리는 바지락칼국수. 오이도와 대부도에서 즐겨 찾는 단골 바지락 요리다. 바지락을 넣고 팔팔 끓인 육수에 칼국수 면과 숙주, 당근, 호박 등 각종 야채를 넣어 푹 끓이면 그 시원하고 깊은 맛이 일품인 바지락칼국수가 완성된다. 안산 대부도 북쪽 구릉도에 위치한 '대부객주'는 바지락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로 사랑받는 맛집이다. 이곳의 인기 있는 메뉴는 바로 바지락 찜밥. 바지락으로 만든 찜장과 찜채소, 제육볶음을 함께 제공하는데 '바지락 찜장'으로 인해 시그니처 메뉴가 됐다. 바지락 찜장은 예로부터 전해진 대부도 토속 음식으로, 과거 어부들이 갯벌에서 바지락을 채취한 후 남은 바지락을 해결하기 위해서 걸쭉한 찜개로 만들어 먹거나 바지락을 갈아서 집된장과 함께 고사리, 버섯, 시래기 등을 넣고 볶아 찜장으로 만들어 먹었다고 한다. 바지락이 된장의 강한 맛을 순하게 만들고, 부드럽고 고소한 끝맛으로 찜밥과 삼겹살에도 잘 어울린다. 밥에 바지락 찜장만 있어도 밥 한 공기씩은 딱딱, 별다른 반찬이 필요 없는 밥도둑이다. 흔하게 볼 수 있는 우렁 찜장과는 다른 매력으로 바지락 찜장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부객주만이 전통 방식으로 제조하고 있어 그 특별함을 더한다. 따스한 봄날, 가족 나들이로 바지락 캐기 체험도 하고, 바지락으로 불기운을 물씬 느껴보면 어떨까?

'대부객주' 사장님이 전하는

바지락 Tip!

“경기도 바지락은 겨우내 갯벌 깊은 곳에 있다가 봄이 오면 왕성하게 활동을 시작하죠. 특히 경기도 갯벌에서 많이 나옵니다. 속이 두껍고 먹으면 입안이 딱 차고 탱글탱글한 식감이 매력적이죠. 바지락은 보통 해감된 상태로 유통하지만, 집에서 3% 염도의 물에 바지락을 1시간 정도 담가두면 바지락이 펴를 다 뱉어냅니다. 이럴 때 보자기 등으로 덮어서 환경을 어렵게 해주면 더 좋고요. 바지락은 국물 요리와 특히 잘 어울립니다. 집에서 바지락 요리를 한다면 바지락 된장찌개를 추천해요. 바지락 소라 무침, 바지락 찜장 등 특별한 바지락 요리를 맛보고 싶다면 대부객주로 놀러오세요~”



Info.

대부객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구봉타운길 36

매일 09:30~20:30

☎ 0507-1302-9643

경기도에 있는 이색 바지락 요리!

- 호이 라이 콧 (태국식 소스로 볶은 바지락)**
 - ① barn110 밤리단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울전로 7번길 7-7
- 바지락순찜**
 - ① 비하인드스토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인덕원로24번길 55
- 바지락된장전골**
 - ① 옥된장: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135
- 비빔바지락칼국수**
 - ① 와각칼국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아랫말길 27
- 치즈바지락전**
 - ① 부안바지락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142번길 29



집에서 즐기는 바지락 요리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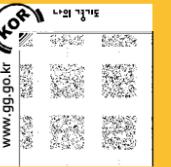
바지락 베이컨 스프

요리 시간 25분

재료 바지락 1주먹, 베이컨 4줄, 밀가루 3큰술, 버터 1조각, 생크림 300ml, 우유 150ml, 미림 100ml, 대파, 감자, 양파, 파슬리

만드는 법

- ① 각종 채소는 먹기 좋게 손질하고, 베이컨은 미림을 넣어 약 20분 정도 재워주세요.
- ② 냄비에 버터와 손질한 채소, 베이컨을 넣고 볶아주세요.(양파가 반투명해질 때까지)
- ③ 냄비에 밀가루 3큰술을 넣고 볶다가 바지락 육수 2컵을 부어주세요.
- ④ 우유 150ml와 생크림 300ml를 넣고 원하는 농도가 나올 때까지 끓여주세요.
- ⑤ 바지락 살과 미림을 한 스푼 넣고, 한소끔 끓인 후, 위에 파슬리까지 뿌려주면 완성



WELLNESS LIFE



눈 건강 가이드

결막염 / 각결막염 / 안구건조증

봄기운과 함께 찾아온 불청객 안질환 타파하는 ‘눈 건강 가이드’

따뜻해진 봄 날씨로 야외 활동이 부쩍 늘어나면서 안구 건강에 비상이 걸렸다.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꽃가루와 함께 미세먼지, 황사 등으로 오염된 대기가 눈처럼 예민한 기관에 자극을 주기 때문이다. 봄철 흔히 발생하는 눈 질환 3대장인 ‘알레르기성 결막염’, ‘각결막염’, ‘안구건조증’의 증상과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먼지와 꽃가루 조심! ‘알레르기성 결막염’

눈이 간지럽고 붉게 충혈되며 붓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알레르기성 결막염일 가능성이 크다. 결막은 눈꺼풀의 안쪽과 안구의 가장 바깥쪽을 덮고 있는 얇고 투명한 점막인데 이곳에 염증이 생기면 눈의 충혈, 가려움증, 분비물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외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먼지, 꽃가루, 약품, 화장품 등 수많은 물질에 의해 염증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외부 물질에 의한 과민반응으로 나타나는 결막염을 알레르기성 결막염이라고 한다.

전염성이 강한 것이 특징으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해야 한다. 적절한 치료와 관리로 대개 쉽게 회복되지만, 방치할 경우 더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즉각적인 치료를 권장한다.

알레르기성 결막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을 자주 씻고, 개인용 물품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눈에 손을 대지 않도록 주의하고, 외출 후에는 반드시 눈을 깨끗이 씻는 것이 좋다.

Check List.

- ✔ 눈이나 눈꺼풀의 가려움증
- ✔ 결막의 충혈
- ✔ 눈의 화끈거림을 동반한 전반적인 통증과 눈부심
- ✔ 눈물 흘림

봄철 건조한 대기로 인한 ‘안구건조증’

눈물은 눈을 건조하지 않게 하고, 눈 표면을 균일하게 유지해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해준다. 항균 작용을 하는 성분이 있어 나쁜 균을 막아주고 눈에 생긴 노폐물과 이물질을 제거해 주며, 상처 치유 물질이 있어 눈에 상처가 났을 때 치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도 있다. 안구건조증은 눈물의 양과 질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한다. 성인 3명 중 1명이 호소하는 흔한 질환인 안구건조증은 눈을 촉촉하게 유지해 주는 눈물층에 이상이 생기는 눈물막 질환이다. 크게 눈물분비 부족형, 눈물증발 과다형으로 구분되는데 대부분의 환자가 눈물증발 과다형에 해당한다.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은 눈꺼풀 온찜질이다. 하루 2~3회 안대나 핫팩 등을

강력한 전염성을 가진 ‘각결막염’

우리가 흔히 ‘눈병’이라고 말하는 각결막염은 검은자위인 각막과 흰자위를 덮고 있는 얇고 투명한 점막인 결막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발생한다. 감기의 원인 바이러스 중 하나인 아데노바이러스가 원인으로 결막뿐만 아니라 각막에도 염증이 동반될 수 있어 각결막염이라고 부른다. 충혈과 눈곱, 이물감, 부종, 눈물, 눈부심 등 흔히 생각하는 눈병의 증상이 나타나지만, 5일에서 일주일가량의 잠복기가 있어 알아차리기는 쉽지 않다. 3~4주 이내에 특별한 합병증 없이 치료가 가능하며 보통 봄부터 늦여름까지 이어지는 질환으로, 철저한 예방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발병 후 약 2주간 전염력이 있으므로 주위 사람들에게 옮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공기로 전염되지는 않지만 바이러스 매개가 될 수 있는 물건을 따로 사용하고 사람이 많은 장소는 피하는 것이 좋다. 당연히 눈을 만지고 비비는 것도 금물. 안약을 넣을 때도 끝부분이 오염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Check List.

- ✔ 눈의 이물감
- ✔ 눈물과 눈곱
- ✔ 충혈과 눈꺼풀 부종
- ✔ 눈에 느껴지는 통증
- ✔ 눈부심

이용해 10분 이상 해주는 게 효과적이다. 찜질 후 마이봄샘(눈꺼풀 가장자리에 위치한 눈물샘) 등에서 녹아 나온 기름 찌꺼기는 눈꺼풀 전용 청결제 등으로 닦아낸다.

Check List.

- ✔ 눈의 이물감
- ✔ 눈을 뜰 수 없는 피로감
- ✔ 눈물과 두통
- ✔ 충혈
- ✔ 빠근하고 침침하며 시린 느낌



산불 안전지대는 어디에도 없다! 봄철 산불 안전 수칙

봄은 연중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다. 지난해 일어난 총 279건의 산불 가운데 봄철 산불이 158건으로 57%에 해당하고, 그중 경기도가 82건으로 가장 많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매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허창범 소방관이 고양소방서 119구조대 박준흠 소방관을 만나 봄철 산불 안전 수칙에 대해 들어보았다.

허창범 소방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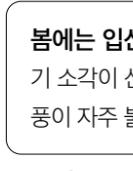
2016년 경기도 소방공무원에 임용되어 300여 건의 크고 작은 화재·구조·구급현장에서 활동했으며, 구조행정, 화재예방점검 등의 직무를 수행했다. 현재는 경기도청 도민소통담당관에서 소방SNS 기획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박준흠 소방관

2015년 경기도 소방공무원에 임용되어 다양한 현장에서 활동했으며, 비번일에 등산 중 다친 등산객을 구조해 2023년 생명존중대상을 수상했다. 현재는 고양소방서 119구조대에서 구조현장 출동 업무를 하며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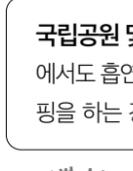
다른 계절보다 봄에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봄에는 입산자가 늘어나면서 취사 및 담뱃불 등으로 화재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실제 등산객 실화와 논·밭 쓰레기 소각이 산불이 일어나는 원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작은 불씨가 큰 산불로 이어지는 이유는 봄에는 강풍이 자주 불고 대기가 건조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순식간에 불길이 번질 수 있습니다.



산에 오르는 분들이 산불 예방을 위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국립공원 및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산에서 취사나 흡연은 불법입니다! 국립 또는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등산로에서도 흡연은 물론ライター나 성냥 등 화기물을 소지하지 않도록 하고, 등산로가 아닌 구간으로 다니지 않아야 합니다. 캠핑을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지정된 곳에서 취사를 하고 바비큐를 할 때 불씨가 날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산불을 목격할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산불을 목격한 즉시 현재 위치를 잘 파악해서 119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위치, 불의 크기, 바람의 방향을 소방서에 전달하면 빠른 대처로 산불이 크게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작은 불이라면 주변의 흙이나 가지고 있는 물을 이용해서 진화되되, 초기 진화에 실패하면 산불이 발생했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빠르게 대피해야 합니다. 약간의 연기 흡입도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젖은 천이나 마스크로 코와 입을 가리고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피할 때는 바람 부는 방향을 등지고 서둘러 계곡이나 저지대로 이동해야 합니다.



시민들에게 산불 관련 안전에 대해 전하고 싶은 당부가 있다면?

산불이 난 지역을 (불가피하게) 통행하실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불이 크게 일어난 경우는 진화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나무가 타고 나서도 숲이 되어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재발화할 수 있어 소방관들이 일일이 육안으로 확인하며 신중하게 진화합니다. 또한 산불 현장에서는 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음지의 경우는 4월이라도 결빙이 될 수 있습니다. 꼭 얼지 않았더라도 땅이 질퍽해 실족 사고가 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런 점을 유념하시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회 소식

경기도의회의 더 많은 소식은

의회 누리집(www.gg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 발전을 선도하며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예술·종교 등 도민의 문화적 삶과 관련된 분야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 내 문화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도민 누구나 시·공간의 제약 없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경기도민의 문화 향유권 향상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황대호 위원장을 비롯한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국 및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와 협력하며,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한국도자재단,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아트센터,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등 9개 소관 기관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조례 정비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도민 모두가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



현장 정책회의



인사청문회

주요 정책 점검 및 소관기관 임명 후보자 철저 검증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월 문화체육관광국 및 소관 기관과의 현장정책회의를 열어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 분야 주요 사업 및 행사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2월에는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임명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의 정책 추진 능력과 자격에 대해 심도 있게 검증했다.

도민 정책 참여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주민 참여에 기반한 협력적 거버넌스가 지방자치 운영의 핵심 원리로 떠오르면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도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민관 협력 거버넌스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분야 민관협력 모델 개발: 경기도 맞춤형 거버넌스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여 도민이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민 여가 증진 및 체육시설 개선을 위한 조례 정비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도민의 여가 활성화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9세 이상 경기도민이 The 경기패스카드로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사업체에 대해 결제 시 20%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경기 Life 플랫폼 사업' 관련 조례를 개정해 도민과 종사자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지난 2월에는 시·군이 체육대회를 개최하며 체육시설을 설치·보수할 경우, 도지사가 국제경기 수준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등 경기도 체육 발전을 위해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마스코트 소원이예요!

귀여운 외모와 달리 재주가 많고 지식이 풍부해 어떤 문제든 똑똑 해결하는 경기도의 든든한 해결사랍니다. 정의로운 성격으로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소원은 이웃들의 미소와 칭찬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의회 소식

경기도의회의 더 많은 소식은
의회 누리집(www.gg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원 체험교육 실시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의원들이 3월 5일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에서 진행된 '의원 생활안전 체험(참여형)교육'에 참여했다. 국민안전의식 함양과 실질적인 생활안전 이해 증진을 위해 진행된 이번 교육은 기존의 강의식 중심교육에서 벗어나 실제 의정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체험교육으로 실천 감각을 높이고, 직접 체험을 통해 배운 것을 실제로 적용하는 집중도 있고 몰입도 높은 체험(참여형)학습으로 기획됐다. 체험(참여형)교육에는 6명의 의원이 참여해 6가지 체험 종목(소화기 사용체험, 연기대피체험, 완강기체험, 지진체험, 생존배낭꾸리기체험, 다중밀집상황 체험)을 경험했다.

한편,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은 경기도 오산에 위치해 있으며, 국민의 위기 대처능력과 생활 속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체험관은 어린이 안전동화 마을, 복합안전체험장, 응급처치전문체험장 등 9개 존과 63개 체험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직 소방관이 직접 교육을 진행하여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위원회,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제2차 회의 개최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위원회는 3월 18일 경기도 북부분원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경기북부 지역의 균형 발전과 의정 활동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현황을 중심으로, 경기북부 지역의 자립적 성장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균형발전기획실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업무보고를 통해 경기북부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논의도 이어졌다. 경기북부 대개발 구상,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접경지역 규제 완화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합리화, 지역균형발전 사업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되었으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도 포함되었다. 특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며, 중앙정부 및 경기도와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경기도의회는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이 단순한 행정적 조치가 아닌,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경기도의회가 경기북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어르신 위한 '확대판 의회 소식지' 시범 제작

경기도의회는 지난 3월 24일 어르신들이 보다 편하게 읽어볼 수 있는 확대판 소식지를 시범 제작해 배포했다. 이번 소식지는 기존보다 큰 사이즈로 제작되며, 글씨를 키워 작은 글씨 읽기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구독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확대판 경기도의회 소식지는 기존 A4 크기(가로 21cm, 세로 30cm)에서 A3 크기(가로 30cm, 세로 37cm)로 2배가량 확대되며, 글씨도 크게 제작된다. 시범 배포 대상은 도내 5,000여 개 경로당이다.

일반적으로 소식지를 확대 제작하면 무게 증가로 인해 운송비 부담이 커지고, 이 때문에 내용을 편집해 페이지 수를 줄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확대 제작한 경기도의회 소식지는 기존 소식지의 정보에서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그대로 100페이지를 유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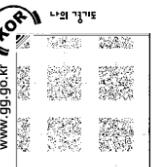
이번 시범 제작은 지난해 11월 열린 하반기 제3차 의정홍보위원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당시 위원들은 중장년층의 소식지 구독률이 높은 점을 고려해 큰 글씨 소식지 제작과 도내 경로당을 주요 배포처로 선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경기도의회 언론홍보담당관 홍보팀에서는 올해 처음 발행되는 3월호 소식지에 의정홍보위원회의 제안 사항을 즉시 반영해 시범 제작을 진행하게 됐다.

제5차 의정홍보위원회 회의 개최

경기도의회 의정홍보위원회 제5차 회의가 3월 21일 오후 2시 도의회 정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 안건은 경기도의회 소식지 4월호 제작(안)과 웹드라마 배우 공개오디션 개최(안) 등이었다.

먼저 이번 3월호 소식지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읽어주기 기능이 개선됐다. 이전에는 기계 음성이었지만 올해는 성우 음성의 e-book형식이 도입됐다. 4월호 소식지 표지는 여야가 힘을 모아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의미가 담긴 '화합'이라는 의정 메시지가, 뒤표지는 4월 28일 총무공 이순신 탄신일을 기념하는 시안이 선정됐다. 이어 올해 웹드라마 배우 공개오디션 개최에 관한 보고도 진행됐다. 배우 공개오디션은 오는 4월쯤 열릴 예정이며, 오디션을 통해 주요 배역을 담당할 조연 배우 4명이 선발된다. 심사위원으로는 경기도의회 홍보대사인 배우 홍경인이 참여한다.

한편, 소식지 '경기도의회'는 구독을 희망하는 도민, 각 공공기관 및 지역상당소 등을 대상으로 발행·배포 중이며, 전화(031-8008-7123) 또는 도의회 홈페이지(www.ggc.go.kr)에서 신청하면 누구나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메모하세요! 농치면 아쉬운 4월의 문화생활

따뜻한 바람과 햇살이 야외활동을 부추기는 4월. 다채로운 콘텐츠 가득한 경기도에서 성큼 다가온 봄기운을 마음껏 느껴보자.

한국현대목판화 70년: 판版을 뒤집다



195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한국현대목판화 70년의 역사를 조명하고자 기획된 전시이다. 판화 중에서 가장 유구한 역사를 지닌 목판화는 날카로운 조각 도구를 활용해 나뭇결의 느낌을 극대화하여 판각하는 기법이 적용된다. 경기도미술관은 이번 전시를 통해 지나온 한국현대목판화 70년의 궤적을 살펴봄과 동시에 앞으로의 70년을 기약할 수 있는 소통의 시간을 마련했다.

□ 2025. 3. 20.(목)~2025. 6. 29.(일)
◇ 경기도미술관 2층 기획전시실 1,2,4
☎ 무료
☎ 031-481-7000
① gmoma.ggcf.kr

전지적 백남준 시점



백남준의 2025년 개인전 <전지적 백남준 시점>은 백남준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경험하는 시간을 다루는 전시다. 전시의 중심에는 백남준의 지난 인터뷰 영상이 있다. 음악과 텔레비전에서 출발한 이 전시는 각자의 시간 앞에 오롯이 놓여 있다. 몽타주처럼 시공간을 넘나들며 전시를 감상할 수도 있지만, 각 작품에서 다르게 흐르는 시간을 비교하며 시간의 다채로운 방향성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이다.

□ 2025. 4. 10.(목)~2026. 2. 22.(일)
◇ 백남준아트센터 제1전시실
☎ 무료
☎ sylee@njpartcenter.kr/sangah@njpartcenter.kr
① njp.ggcf.kr

비(飛)물질: 표현과 생각 사이의 틈



힘든 예술이라 여겨지는 '비물질' 군의 작품을 다루고자 한 전시다. 여기서 비물질의 의미는 아닐 비(非)에서 시작되어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작품이었지만, 이번 전시 맥락 안에서 비물질은 날 비(飛)로 의미를 확장하여 작품에 새로운 날개를 달아보려 한다. 모든 과정은 연극의 내용을 전환하는 개념인 '막'과 '장'으로 구성하며 생동하는 전시의 현장성을 보여준다.

□ 2025. 3. 20.(목)~2025. 6. 28.(토)
◇ 경기도미술관 기획전시실 3
☎ 무료
☎ 031-481-7000
① gmoma.ggcf.kr

카타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첫 내한 단독공연(조수미 협연)



카타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30개국에서 선발된 96명의 연주자로 구성된 국제적인 오케스트라다. 아랍과 서양 음악의 융합을 통해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들은 중동을 대표하는 오케스트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번 공연은 카타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지휘자 윌슨 응(Wilson Ng), 그리고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피아니스트 박재홍이 협연하여 글로벌 한류 콘텐츠와 아랍 문화 교류의 상징적 무대를 선보인다.

□ 2025. 4. 12.(토)
◇ 고양아람누리 아람극장
☎ R석 : 130,000원, S석 : 110,000원, A석 : 90,000원, B석 : 70,000원
☎ 1577-7766
① artgy.or.kr

모두에게: 초콜릿, 레모네이드 그리고 파티



전시는 기존의 미술관 모델이 지닌 경직성을 벗어나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와 경험을 반영하는 열린 공간을 지향한다. 또한 상호 이해를 촉진하는 공간으로서 미술관의 역할을 재조명한다. 참여 작가들은 조각, 영상, 설치, 퍼포먼스, 텍스타일 등의 매체를 통해 관람자에게 대화를 건네며, 전시와 함께 진행되는 워크숍과 프로그램들을 통해 문화적 경험의 폭을 넓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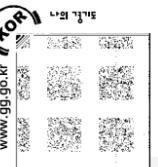
□ 2025. 4. 15.(화)~2025. 8. 24.(일)
◇ 수원시립미술관 행궁 본관
☎ 4,000원
☎ 02-228-3800
① suma.suwon.go.kr

With. 경기

경기문화재단·문화 기관 관람 안내

- ① 경기문화재단 멤버스 누리집(members.ggcf.kr)과 각 문화 기관 누리집에서 예약해 주세요.
- ② 경기아트센터 공연 관람 전 누리집(ggac.co.kr)을 확인하세요.





**회의실 대관부터 법률상담서비스까지
경기공유서비스 이용하세요!**

‘모임을 할 만한 넓은 공간이 없을까?’, ‘친구들과 축구하고 싶은데 어디서 신청해야 하지?’, ‘급하게 휠체어가 필요한데 빌릴 방법이 없을까?’ 등을 고민하고 있다면 경기공유서비스를 이용해보자. 경기공유서비스는 도, 공공기관, 시군에서 제공하는 공유서비스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개방 중인 공공시설을 예약하기 위해 각 기관에 연락하거나 개별 홈페이지에서 일일이 찾아야 하는 불편함을 대폭 줄였다. 또한 검색 및 예약-결제 서비스도 제공한다.

- 신청 방법** 경기공유서비스(share.gg.go.kr) 접속 후 지역별·서비스별 자원 확인·신청
- 문의** 콜센터 031-120



제3회 경기도 기후변화주간 행사

4월 22일은 지구의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기 위해 제정된 ‘지구의 날’이다. 경기도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도민 인식 제고 및 기후행동 확산을 위해 기후변화 주간 행사를 운영한다. 행사는 4월 15일(화) 일산문화광장에서 진행된다. 플로깅, 걷기, 환경교육, 자원순환 놀이터 운영 등 전 연령이 함께하는 주민참여형 부스, 빨래 놀이·찰흙놀이·악기놀이·비닐놀이 등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플로깅 활동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 일시** 2025. 4. 15.(화) 10:00~18:00
- 장소** 일산문화광장(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45)
- 문의**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031-985-0796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확대

경기도가 여성청소년의 보편적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 시행 중인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지난해 21개 시군에서 올해 24개 시군으로 확대한다. 대상 시군에 거주하는 11~18세(2007~2014년 출생) 여성청소년은 신청을 통해 생리용품 구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지난해보다 월 1,000원 증액돼, 1인당 최대 연 168,000원이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된다.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두 차례에 나눠 진행된다. 1차는 3월 4일부터 4월 11일까지, 2차는 6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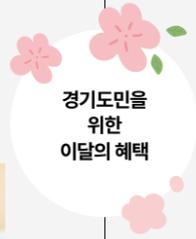
- 신청 방법** 온라인(경기민원24, gg24.gg.go.kr) 및 오프라인(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사용 방법** 참여 시·군 지역화폐 가맹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에서 생리용품 구입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등에 교복구입비 지원

경기도가 대안교육기관이나 다른 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도내 학생에게 단체복 구입비 최대 40만 원을 지원한다. 학교 규정에 명시된 단체복이거만 하면 교복, 생활복, 체육복 등 품목에 상관없이 구매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40만 원까지 실비로 지급된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학부모는 3월 10일부터 12월 5일까지 경기민원24 누리집(gg24.gg.go.kr)이나 시·군청,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단체복 구매영수증과 재학증명서 등의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지원 대상** 입(전)학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기도민 이면서 ① 중·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대안교육 기관 입학생이거나, ②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
- 구비 서류** 재학증명서, 교복 착용 규정, 구입영수증(품목, 금액), 통장사본 등



맘튼튼 축산물꾸러미 지원 사업

경기도가 26개 시군과 함께 ‘2025년도 맘튼튼 축산물꾸러미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을 3월 4일 10시부터 개시했다. 2025년도 4만 명의 산모에게 국내산 축산물꾸러미를 지원하여 경기침체로 위축된 국내 축산업을 활성화하고 가족 화합을 통한 출산 장려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25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산 후 도내 사업 참여 26개 시군에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완료한 산모로, 10만 원 상당의 축산물꾸러미를 택배로 배송해 준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2배로 지원이 상향되어 시군별로 더 많은 품목(부위 등)과 용량으로 보다 풍성한 꾸러미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신청 방법** 온라인(경기민원24, gg24.gg.go.kr) 및 오프라인(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치매환자 돌봄 가족이라면 ‘안심휴가’ 지원받으세요!

경기도가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 지원’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부득이한 외출이나 출타로 며칠간 집을 비워야 하거나 장기간 돌봄에 지친 가족이 일정 기간 육체적·정신적인 휴식이 필요할 때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가 운영 중인 도내 6개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에 치매환자의 단기 입원을 지원한다. 입원 기간은 연중 최대 10일까지이며 입원 기간 중 간병비(일 3만 원)를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도에서 지원한다. 입원비는 가족 부담이다. 노인전문병원을 이용하지 않는 가족의 경우엔 방문요양서비스나 단기보호시설 이용 시 발생하는 이용료의 본인부담금을 연간 10일간 최대 20만 원(일 2만 원)까지 지원한다.

- 문의** 경기도 광역치매센터 031-271-7030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

경기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의 대표 복지정책 시리즈인 ‘360° 언제나 돌봄’ 중 하나다.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등) 또는 이웃 주민이라면 최대 월 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생후 24~48개월 미만)은 주민등록상 참여시군에 거주하고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이어야 하며 소득제한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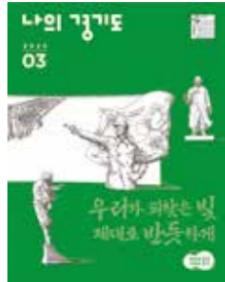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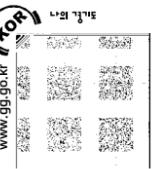
- 신청 기간** 2025. 2. 3.(월)~5. 10.(토) ※매월 1~10일 신청 가능
- 지원 금액** 아동 1명당 월 30만 원, 2명 월 45만 원, 3명 월 60만 원
- 신청 방법** 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일괄 신청 ※제출서류 등은 경기민원24 누리집 참조
- 문의** 관할 시군주민센터 또는 경기콜센터 031-120



2025년 경기 임신출산교실 참여 예비 부모 모집

경기도가 초보 예비 엄마·아빠를 위한 경기 임신출산교실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 도는 3월부터 11월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는 임산부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임신·출산과정의 이해, 태교·아이발달 교육, 산전·산후우울증에 대한 이해, 산림치유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기 임신출산교실은 총 5개 기수로 나눠 운영되며, 1개 기수당 10쌍의 임산부와 배우자를 모집한다. 5개 기수 중 1개 기수는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기수별 교육장소(도내 시군)를 바꿔가며 사업대상의 다양성과 접근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 문의** 경기북부 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031-961-8500~8502
- 신청방법** 누리집(happyfamily.dumc.or.kr)



<나의 경기도> 3월호를 읽고

경기 골목길 투어 기사 덕분에 골목길 구경을 제대로 했네요. 따스한 날 커피 한잔을 들고 봄 햇살을 흠뻑 맞으며 골목길을 걷고 싶었어요. 언젠가 건강을 되찾아 다시 걷게 된다면 꼭 고운 풍경을 담아 올게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정아

경기도에 이색 막걸리가 이렇게 많았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막걸리의 유래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경기도의 이색 막걸리 소개로 넘어가더니 어느 틈에 체험 후기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니까 너무 재미있었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발굴하는 <나의 경기도>가 되길 기대합니다.

박우철

웰니스 라이프 저속노화식단 기사가 유익했습니다. 평생 건강하기만 할 것 같았는데 작년에 갑자기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 저속노화에 관심이 생겼어요. 마침 <나의 경기도>에서 저속노화식단에 관해 다뤄줘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무조건 굶기만 하고 운동하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곽병두



다음 QR을 스캔하여 구독후기를 보내주세요.

기타 당첨자
박민우 010-XXXX-1097

사진 퍼즐 이벤트



정답 : 수원 행리단길 E-A-F-C-B-D

당첨자

- 이숙희 010-XXXX-1178
- 공문식 010-XXXX-8830
- 유관영 010-XXXX-5672
- 박윤미 010-XXXX-8356
- 최현선 010-XXXX-0522

낱말퀴즈 이벤트

	1	배	이	2	비	부	머
1	기			행			
후				기			
행							
2	배	시					

당첨자

- 조바울 010-XXXX-8825
- 신계선 010-XXXX-7582
- 김정이 010-XXXX-1075
- 서공석 010-XXXX-6626
- 유미경 010-XXXX-8186

경기 명소 인증샷 이벤트



권정원



안도현



김양희

기타 당첨자

- 최상미 010-XXXX-2775
- 안민영 010-XXXX-1572

정기 구독 신청 안내

경기도에서 발행하는 <나의 경기도>는 무료로 배부되는 월간 소식지입니다. 정기 구독을 신청하시면 다음 호부터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구독 신청, 구독 취소, 주소지 변경
apply.gg.go.kr
문의 031-8008-2827

<나의 경기도> 웹진 구독 이벤트에 참여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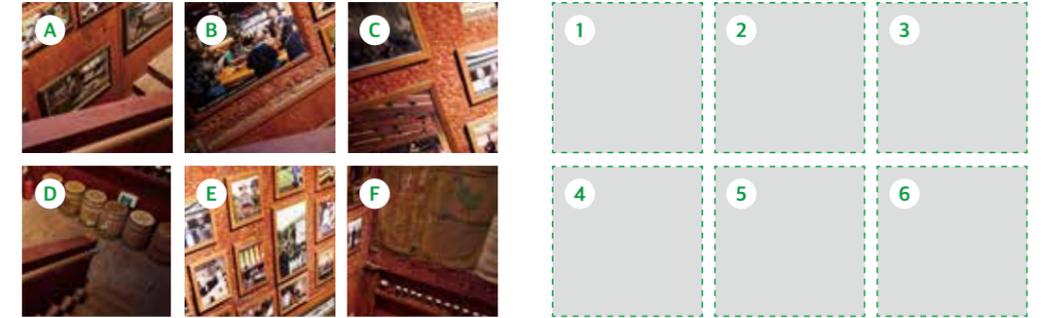


EVENT 1. 이곳은 어디일까요?

아래 사진은 <나의 경기도> 4월호에 실린 사진입니다. 조각조각 흩어져 있는 사진의 순서와 사진의 장소가 어디인지 정답을 맞춰주세요!



사진 퍼즐 응모하기



정답 장소 : 알파벳 : () - () - () - () - () - ()

- 참여 방법 ① 상단 QR 코드를 찍어 ② 장소 이름과 ③ 우측의 숫자 순서대로 알파벳을 적어 보내기
참여 기간 4월 18일(금)까지
당첨 선물 1만 원 상품권

EVENT 2. 가로세로 낱말 퀴즈

아래 설명을 읽고 빈칸 속 낱말을 적어보세요. 정답 중 두 가지는 <나의 경기도> 4월호 속에 있습니다.

	1	2		
1				
2				



낱말 퀴즈 응모하기

- 가로1. 태양전지 모듈을 지붕이나 옥상, 마당 등에 설치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전기를 직접 이용함으로써 주택의 전기요금을 절감하기 위한 태양광 설비
가로2. 못 쓰게 된 종이나 쓰레기 따위를 버리는 통
세로1.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지원 제도
세로2. 몸의 동작이나 몸을 가누는 모양

- 참여 방법 ① 상단 QR 코드를 찍어 ② 각 빈칸에 맞는 정답 적어 보내기
참여 기간 4월 18일(금)까지
당첨 선물 1만 원 상품권

EVENT 3. '경기 명소 인증샷' 이벤트

여러분이 생각하는 경기도의 명소는 어디인가요? 해당 장소에서 찍은 사진과 간단한 설명(때, 장소, 함께한 이, 장소에 대한 감상 등)을 공유해주세요.



경기 명소 인증샷 응모하기

- 참여 방법 ① 우측 QR 코드를 찍어 ② 본인이 촬영한 풍경사진 원본과 ③ 사진에 대한 간단한 설명 적어 보내기
참여 기간 상시
당첨 선물 1만 원 상품권

특별 독자 후기.



저는 실로암 효명익집 거주 중인 이순희입니다. <나의 경기도> 소식지 보내주신 여러분, 2025년도 만물이 생동하면서 자라올라 피어나듯 날마다 건강하시고 날마다 행복하시며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1943년생입니다. 무력한 시간을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두서없는 편지 이해 바랍니다.
이순희



● 2025년 경기북부 지역새일센터 직업교육 훈련생 모집

주요내용 :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구직자를 위한 직업교육과정

지역	교육명	신청대상	신청기간	모집인원	교육기간	교육장소	신청방법	문의
양주	실전 스마트 여성창업 양성과정	창업에 대한 의지가 높은 여성	-4. 25 (금)~	20명	5. 15(목)~6. 30(월)	양주시여성일생활균형지원센터 (고암길226)	방문접수	031-849-2355
남양주	SI 활용 온라인마케팅	마케팅 분야 취 희망여성	-4. 21. (월)	18명	5. 2.(금)~7. 24.(목)	한글과컴퓨터 학원	방문, 온라인 nyjsa0886@naver.com	031-577-0886
포천	집단지성 취업준비 프로그램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구직자	-5. 9. (금)	10명 내외	5. 12.(월)~5. 16.(금)	근로자종합복지관 4층 (집단지성실)	방문, 온라인 http://www.pcsaell.or.kr	031-523-2061-9
고양	AI 기반 여성창업 레벨업 프로젝트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5. 9. (금)	20명	5. 19.(월)~7. 14.(월)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대학본원	온라인 http://kycenter.or.kr	031-912-3885
	SI 활용 마케팅 실무과정	마케팅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5. 16. (금)	15명	5. 26.(월)~8. 11.(월)			
	보험총무 사무원	보험총무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5. 19. (월)	20명	6. 2.(월)~8. 26.(화)			
의정부	SI 활용 글로벌 무역전문가	무역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경기도 남녀	-5. 27. (화)	18명	6. 10.(화)~8. 26.(화)	경기도 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	잡아바 어플라이 접수 apply.jobaba.net	잡아바 어플라이 공고 확인
	SNS 디지털마케팅 전문가	마케팅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경기도 여성	-5. 27. (화)	18명	6. 10.(화)~8. 26.(화)			
	사회복지사 실무인력 양성과정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취업 의지가 확고한 여성	-4. 10. (목)	20명	4. 21.(월)~6. 19.(목)			
	디지털 융합 멀티미디어사무원 양성과정	사무직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 의지가 확고한 여성	-4. 23. (수)	20명	5. 12.(월)~7. 16.(수)			

● 2025년 경기남부 지역새일센터 직업교육 훈련생 및 행사 모집 안내

주요내용 :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구직자를 위한 직업교육과정 및 행사 안내

센터	과정명	지원자격	모집기간	교육기간	교육장소	신청방법	문의
성남 새일센터	직식재산 전략전문가 양성과정	성남시 및 인근지역 거주 여성 (이공계 전공 우대)	~4. 6.(일)	4. 22.(화)~7. 11.(금)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	방문 또는 이메일 (snw0502@daum.net)	031-718-6696 (내선 3번)
	게임 QA 전문가 양성과정	성남시 및 인근지역 거주 20~34세 미취업청년 (성별 무관)	~4. 27.(일)	5. 7.(수)~8. 6.(수)			
	인공지능(AI) 서비스 기획자 양성과정	성남시 및 인근지역 거주 20~30대 여성	5. 12.(화)~10.00까지	5. 20.(화)~9. 24.(수)			
영통 새일센터	코딩융합 교육전문가	도내 경력보유여성	~4. 11.(금)	4. 28.(월)~7. 10.(목)	영통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방문 신청 및 전화 문의	031-206-1919
	늘봄학교 돌봄전담사	보육교사 또는 정교사 (교원자격증) 자격증소지자	~4. 25.(금)	5. 13.(화)~7. 22.(화)			
이천 새일센터	SI 활용 마케팅 실무자 양성과정	취업 희망하는 청년여성 및 여성구직자	~4. 11.(금)	4. 28.(월)~7. 21.(일)		방문 신청	031-634-2959
센터	행사명	지원자격	모집기간	주요 내용		문의	
성남 새일센터	직장 내 학습동아리	성남시 소재 기업체 근로자 (5인 이상)	~4. 20.(일) 12:00까지	분야 : 직무역량 강화, 독서, 자기개발 학습 등 동아리 활동비 월 30만 원(최대) 총 6개월 지원 온라인 수업 시 개인 PC 및 웹캠 필요		031-718-6696	

● 2025년 경기가족친화기업 0.5 & 0.75잡 참여기업 및 참여자 모집

주요내용 : 경기가족친화기업의 0.5 & 0.75잡을 지원합니다.

모집내용	상세내용	
	모집기간	모집대상
모집기간	~제도도입 및 근태시스템 구축 지원 : 3. 25.(화)~4. 9.(수) 18:00까지 ~지원금 지원 : 4. 3.(목)-예산 소진 시까지	
모집대상	경기가족친화기업 사업주 및 해당기업 근로자	
접수방법	온라인 신청(잡아바 어플라이) : https://apply.jobaba.net	
참여기업	-맞춤형 가족친화 근로제도 도입 (노무컨설팅(전문가 방문) -근태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출퇴근 관리 솔루션 등) 최대 2,000만 원 -추가고용장려금(1인 최대 월 120만 원 인건비 지원)	
지원내용	-단속금지원금(금액 시각 있음 시 1인당 최대 월 30만 원 지급) -업무분담지원금(총 20만 원 한도, 업무대행사 인원수에 따라 인당 차등 지급)	

※ 세부 내용은 잡아바 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에서 확인해주세요.
문의 : 경기도일자리재단(031-270-9763, 9768/평일 09:00~17:00)

● 2025년 경기도기술학교 「온수온돌 기능사」 과정 교육생 모집

주요내용 : 온수온돌 기능사 정규교육과정

과정명	모집기간	교육기간	모집인원
온수온돌 기능사	~4. 11.(금) 17:00까지	4. 21.(월)~6. 12.(목)	12명
지원내용	-중식 무료 제공 -교육비, 교재, 재료 등 교육 -소요비용 및 보조 물품 일체 지급 -훈련지원금 및 자격증 실기시험 응시료 지원		

※ 자세한 교육 내용과 일정 등은 잡아바 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 모집 공고 확인
지원자격 : 공고일 기준 만 15세 이상 경기도민
교육장소 : 경기도기술학교(경기도 화성시 기산로 31-6) *통학버스 운행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잡아바 어플라이) : https://apply.jobaba.net
문의 : (교육문의) 031-270-6666, 6667/(접수문의) 031-270-6656

● 2025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사업 참여기업 모집

주요내용 :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에 참여하고 혜택도 받으세요.

내용	모집기간	자격	모집인원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참여	~25년 5월 이내	경기도 내 소재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기업	제한 없음
인증 혜택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교부 -노동환경개선지원금 지원(최대 500만 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 특 가점 부여(5점), 경기도지사 표창 수여 등		

※ 자세한 내용은 잡아바 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 모집 공고 확인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잡아바 어플라이) https://apply.jobaba.net
문의 : 경기도일자리재단(031-270-9754)
산업재해예방팀(031-8030-4555)

● 경기도민 일생활균형 상담지원

주요내용 : 직장노동 및 고충, 마음심리, 커리어, 자녀양육 등 여러분의 고민 또는 궁금한 점을 문의해 주세요.
신청기간 : 25년 12월까지(경기도민 700명 대상)
*홈페이지 이용 제한 없음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경기도위라밸링크 https://13b.gg.go.kr/ 내 고충상담 메뉴)
지원내용 : 무료 상담 서비스

- ① 온라인 상담 : 고민상담글 작성 시 분야별 전문가가 답변
 - ② 1:1 코칭 : 1인당 3회기 대면+비대면 코칭(1회당 1시간 기준)
 - ③ 그룹코칭 : 상담 주제별 유사한 환경 속 개인의 문제와 고민을 공유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
- ※ 모집일자 및 인원 등 홈페이지 상세 내용 확인

문의 : 경기도일자리재단(031-270-9767, 1551-7235)



봄 사랑 빛꽃 말고 경기봄축제* 즐겨볼까?

- 가평 아침고요 야생화전시회**
3. 8.(토)~4. 13.(일)
- Colorful Garden 자라섬꽃 페스타**
5. 24.(토)~6. 15.(일)
- 연천 구석기 축제**
5. 2.(금)~5. 5.(월)
- 김포 아라미페스티벌**
5. 31.(토)~6. 1.(일)
- 고양행주문화제**
5. 24.(토)~5. 25.(일)
- 양평 용문산 산나물축제**
4. 25.(금)~4. 27.(일)
- 여주 도자기축제**
5. 1.(목)~5. 11.(일)
- 이천도자기축제**
4. 25.(금)~5. 6.(화)
- 화성 뱃놀이 축제**
5. 30.(금)~6. 1.(일)

